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제1395호

정부주도 조선업 구조조정 '항로 이탈'

자산매각 후순위로 밀리고 대규모 감원에만 몰두
전문인력 떠나 정상화되더라도 경쟁력 상실 우려

정부의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지자 조선업 특유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산업 프로세스가 '종업원 숙련도-설계-기자재 조달'로 구축된 상황에서 무차별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결국 화(禍)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하자, 해양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연구개발직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해양플랜트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능력만 믿고 따낸 물량들이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에만 초점을 둔 획일화된 구조조정 방안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경우 현재 본사와 울산, 거제조선소 간 해양플랜트 설계 인력에 대한 재배치 작업이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인력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미 서울에 생활 기반을 갖춘 상황에서 거제조선소로 이동하라는 얘기는 회사를 떠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수년간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외국인 엔지니어 인력들이 올해 들어 계약해지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연구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해양플랜트 설계 인력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한 삼성중공업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앞으로 진행될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에는 선박·해양플랜트 설계·영업·지원부서 인력이 1차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관리자 간부급 순서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감축에는 선행부서(설계)부터 1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이 자산 매각이나 비핵심자산 처분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핵심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 설계 역량 부족이 작금의 적자경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양플랜트의 핵심인 심해장비분야 및 톱사이드(TOP SIDE) 장비 기술 수준은 유럽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해양플랜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의 판단이 결국 오판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을 줄이는 것은 결국 미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력 감축보다 비전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해태제과 14년6개월 만에 증시 컴백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사위 덕분에 '꿈' 이룬 윤영달

신정훈 사장 허니버터칩 성공
작년 영업익 471억으로 '껑충'
코스피 재상장 1등 공신으로

장인의 꿈을 결국 사위가 이뤘다. 15년 만에 화려하게 증시에 컴백하는 해태제과식품을 이끄는 신정훈 사장과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이야기다.

해태제과가 2001년 1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 지 꼭 14년 6개월 만인 11일 증시에 돌아왔다. 이를 바라보는 윤 회장의 소회는 남다르다. 한때 재계 24위(1996년)에 올랐던 해태그룹 모태인 해태제과는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2001년 11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됐다. 1972년 상장 후 29년 만이었다. 해태그룹은 2001년 UBS 컨소시엄에 제과부문만 매각한 후 청산됐고, 해태제과는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당시 인수를 이끈 주인공이 바로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은 크라운제과 몸집의 두 배에 달하는 해태제과를 인수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삼키려 한다'는 비아냥은 물론 크라운제과까지 무너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반대에 부딪혔지만 밀어붙였다. 결국 윤 회장은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태제과 인수 후 11년 만에 상장을 바라보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러나 상장이 쉽지는 않았다. 윤 회장은 2007년과 2012년 재상장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실적 악화로 자격을 갖추지 못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장의 발판이 될 혁신적인 제품의 탄생에 대한 그의 염원은 간절했고, 결국 사위 신 사장이 들고나온 '허니버터칩'이 원동력이 됐다. 허니버터칩은 기존에 없던 감자칩 맛으로 단숨에 스낵 시장 1위로 떠올랐다.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해태제과의 지난해 영업이익(471억원)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당기순이익(170억원)은 4배로 커졌다.

해태제과는 상장을 하루 앞둔 10일 '상장 1등 공신'인 허니버터칩의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선애 기자 lsa@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오른쪽)과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해태제과식품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꽃다발을 안은 채 활짝 웃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中당국, 안방보험 전격조사

감독관 파견 부동산·비상장사 투자 적법성 집중점검

행정처분·형사처벌 받으면
알리안츠 인수 차질 불가피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 추진 중인 중국 안방보험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현지 보험감독당국인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CIRC)가 안방보험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안방보험이 최근에 사들이거나 투자한 부동산 자산, 비상장회사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자했는지를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보도에 대해 안방보험 측은 "검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관건은 중국 보험당국의 조사 범위가 보험업까지 확대될지, 이와 관련해 안방보험이 제재를 받을지 여부다. 만약에 안방보험이 보험업과 관련해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기준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금융업 경영과 관련해 해당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기관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은 CIRC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대주주 적격성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인가 요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처벌의 종류도 다양하다"며 "대주주 승인요건 부합 여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안방보험이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다 해도 작년에 인수한 동양생명 대주주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이 반영된 만큼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등 다른 국내 금융기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추진 중인 인수합병(M&A) 딜이 모두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왜가리의 모정



가정의 달인 5월은 야생조류의 번식기로 둥지마다 어미새들은 새끼 키우기에 바쁘다. 11일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새끼를 돌보는 왜가리의 모습에서 진한 모정이 느껴진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청년실업률 10.9% 4월기준 역대 최대

취업자 증가 20만명대로 추락

4월 취업자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률은 10.9%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2월에 취업자가 22만3000명 증가에 그치자 설 명절 등 특이요인이라고 분석하고 3월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3월 반등한 이후 다시 하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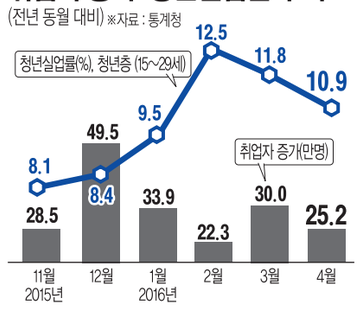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2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매 및 소매업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제조업 증가세 둔화, 농림어업의 감소폭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2월 취업자가 22만3000명 증가에 그친 것은 설 연휴 시점 등 특이요인 해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3월부터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틀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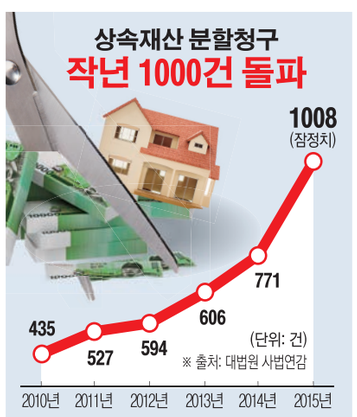
정부 예측과는 달리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취업자 증가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취업자 증가·청년실업률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통계청



데이터 뉴스 Data News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 5년새 2배 ↑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접수 잠정 집계치는 100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국제콘퍼런스 기획 ▶18~21



저출산·고령화시대 CSR

부동산 ▶10



천덕꾸러기 '빌라'

마켓뉴스 ▶22



'신세계 분리' 주가는



신춘호 회장 ▶2



최규복 사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리콜정보, 네이버·다음 메인화면에 뜬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의 리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양대 포털업체인 네이버, 카카오와 11일 1년에 10차례 내외로 발표하는 리콜 정보를 포털 화면에 표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위해 제품을 적발하면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는 국표원으로부터 받은 이 같은 리콜 정보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화면에 띄우게 된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특정 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韓美 엇갈린 공시에 곤혹스러운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뉴욕 증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CJ헬로 인수 무산' 가능성 언급
국내 신고땐 우리말 번역본 누락
논란 일자 뒤늦게 추가 정정공시

"공정위 합병심사 불리한 내용… 일부러 감췄다" 의심의 눈초리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한·미 주식시장에 제출한 엇갈린 공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공시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내 증시에도 우리말 번역본을 뒤늦게 추가했다.

SK텔레콤은 10일 금융감독원 정정공시를 통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15년 사업보고서 번역본을 추가하고, 원문 보고서를 게시한 자사 영문 홈페이지 주소의 오류도 수정했다.

국내 상장사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국내에 신고할 때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게 돼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2일 금감원 신고에서 이 번역본을 누락했다. 또 자사 홈페이지 주소마저 잘못 신고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합병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한글 보고서를 실수로 첨부하지 않았다"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이 담긴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에서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모든 위험 요소를 언급해야 하는 만큼 아주 작은 요소들까지 의례적으로 나열하게 돼 있다"며 "한반도 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전자파, 환율변동 등 상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모두 포함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처음으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SK텔레콤은 보고서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인수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금까지 SK텔레콤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이날 기준으로 162일을 맞았다. 이미 방송통신 분야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사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심사기간(145일)을 훌쩍 넘기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춘호 '신의 한水'… '백두산 백산수' 통했다

〈농심 회장〉

1분기 매출액 91억 42% 신장
전체 생수시장 성장률의 3배
삼다수 이어 점유율 2위 껑충
이세돌 모델 발탁 마케팅 박차



신춘호 농심 회장과 농심 '백두산 백산수'.

신춘호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백두산 백산수'가 생수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농심은 백산수의 올해 1분기 매출액(닐슨코리아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41.7% 성장한 91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생수 시장 주요 브랜드 중 최고의 성장률이다. 전체 생수 시장 성장률 12%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치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도 6.8%로 제주 삼다수(45.7%)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백두산 백산수는 2015년 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2% 성장하는 등 2012년 말 출시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농심은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백산수로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백산수의 매출 상승은 대형마트에서의 인기 덕분이다. 대형마트 내 백산수의 시장점유율은 11.2%로 전체 시장에서 거둔 성적보다 높다.

농심 측은 최근 생수의 수원지와 품질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가 늘면서 백산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농심 관계자는 "주부들의 구매결정권이 높게 작용하는 대형마트 특성을 감안하면 백산수가 가족 생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근거"라며 "백산수의 품질 우수성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본격적인 생수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백산수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최근 신라면 광고모델로 발탁한 바둑기사 이세돌을 백산수 광고모델로 연이어 선정했다. 농심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청정 원시림에서 취수한 백산수와 최근 바둑대국을 통해 인간 대표로 불리는 이세돌의 연결고리를 맺고, '대한민국 대표 생수 백산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세돌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세돌을 모델로 한 백산수 광고는 "좋은 세상, 좋은 물 먹고 오래 오래 살아요"라는 카피와 함께 백두산 천지와 집에서 백산수를 마시는 이세돌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원지 백두산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이세돌을 모델로 한 새로운 광고와 함께 여름철 홍보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올해 두 자릿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단독 2등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농심은 신라면에 이어 백두산 백산수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의지로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2000억원을 투자, 중국 지린성 이도백하 지역에 백산수 제2공장을 완공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백두산 백산수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백두산 내두천을 수원지로 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물맛과 미네랄 함유량 등 품질에 있어 최고점을 받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적자 지속'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인력, 계열사 재배치 속도

조준호 사장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조직 추스르기

"성장사업 분야 역량 집중일 뿐"
직원 이메일 '구조조정설' 일축



조준호 LG전자 사장

조준호 LG전자 사장이 항간에 떠도는 인력감축설을 일축하며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지만 성장 사업본부 및 계열사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9일 오후 임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내 타산업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산업계에 일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LG전자 내에서도 감원설이 나돌자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2분기부터 MC사업본부 실적이 급감하며 여러 루머들이 등장했다. 당시 조 사장이 인력재배치 방침을 공표하자 일각에선 구조조정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는 당시에도 조직 내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1~3월) 2000억원대 적자를 낸 데다 전략 스마트폰 'G5'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최근 다시 증폭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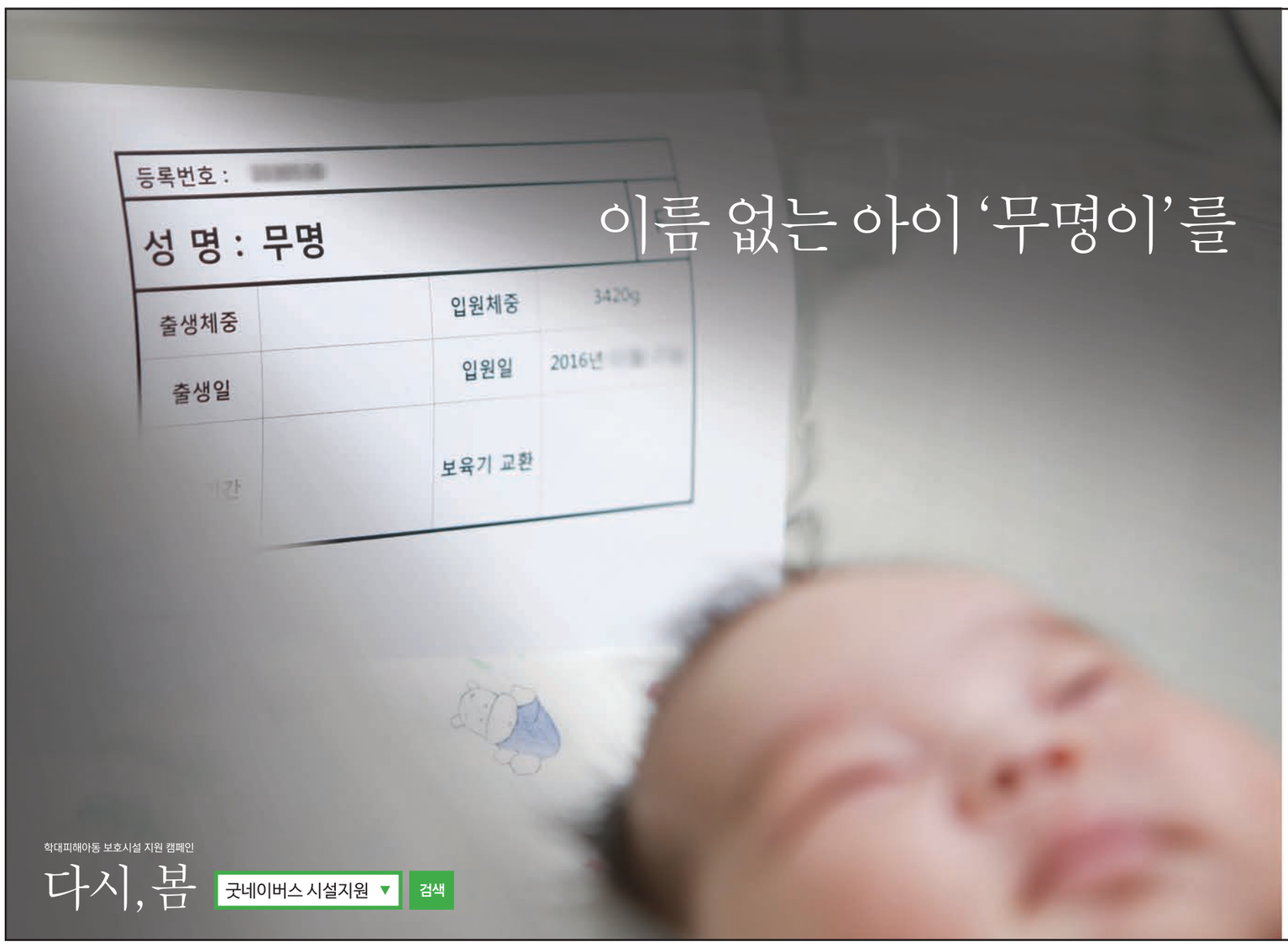
조 사장은 "1분기 MC사업본부의 2000억원 적자로 외부에서 인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위적인 인력 조정은 없을 것이고 이는 MC사업본부장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표이사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동안 LG그룹 내 성장 사업부에서 MC사업본부의 유능한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자 LG전자는 인력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이는 조 사장이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 직후 "MC사업본부 인력의 15~20%에 달하는 직원들의 소속을 재배치하겠다"고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신성장 동력이자 전장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VC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초 2400명에서 4분기 3400명으로 인원이 확대됐다.

뉴스레터를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성과 향상에 힘을 쏟기를 주문한 조 사장은 "전자나 계열사 내의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MC사업본부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고려해 인력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조 사장은 지난달 출시해 호평을 받고 있는 전략 스마트폰 LG G5에 대해서도 "생산이 안정돼 이제는 셀아웃(Sell-Out)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굿네이버스

다시, 봅니다

봅니다
차가운 공중 화장실에 버려진 이름 없는 아이를

다시 봅니다
예쁜 이름이 생기고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학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따뜻한 울타리에서 보호되도록 다시 돌아봐 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후원금은 전국 18개 굿네이버스 그룹홈과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美 금리인상, 한국은 인하 기대감…전문가들 "환율 더 오를 것"

환율관찰국 지정에도 원화 강세 왜?

한국과 미국간 엇갈린 통화정책 기대감에 환율과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2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반전했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통안채 2년물에서 국고채 5년물까지 사상최저치를 연출했다. 한국은 한국형 양적완화로 알려진 해운과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은 물론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 비둘기파(통화완화)로 알려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내 두 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연준(Fed) 금리인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급등세로 마감한 10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환율 지수가 6.8원 오른 1,172.6원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반등해 14.69포인트 상승한 1,982.50으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8원 상승한 117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월 17일 1173.3원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최근 4거래일 동안 34.8원이나 급등한 것이다.

반면 원·달러는 불과 20일 전인 지난달 21일 1132.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작년 11월4일 1132.0원 이후 5개월 보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미 금리인상 시사+엔화 강세 되돌림에 달러 강세 = 이처럼 원·달러가 급등한 데는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때문이다. 최근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정책금리를 연내 두 번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올해 두세 차례 인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힌 것이 촉매제가 됐다. 이에 따라 6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美 '비둘기파'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내 두 번" 발언… 달러강세 촉매제

日 재무상 '시장개입' 시사발언도 한몫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 위해 양적완화

"늦어도 3분기 금리인하" 달러매수 자극

원달러 1180원선에서 단기균형 예상

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의결권이 있는 더들리 총재가 금리인상을 언급하면서 달러 강세의 촉매제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환율보고서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비켜갔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상이 미국의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환율정책에 영향을 안 준다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줬다. 환율 개입에 대한 간접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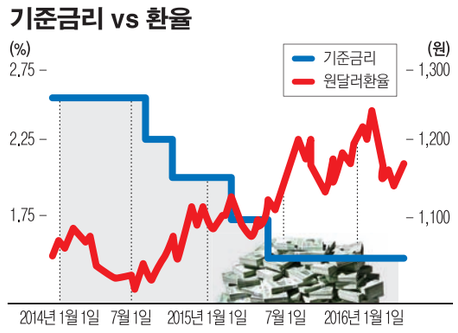
그렇잖아도 시장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실제 10일 달러·엔 환율은 109.10엔까지 치솟았다. 지난 3일에는 105.89엔까지 떨어지며 2014년 10월16일 105.711엔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았었다.

◇한국형 양적완화에 금리인하 기대 = 대내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도 원·달러 상승 요인이다. 현재 한국형 양적완화로 불리는 해운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꾸려졌고, 6월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재정정책이나 한국형 양적완화와 같은 구조조정과 연계시킨 것이다. 지난 4일 이투데이가 채권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명이 이르면 5월에서 늦어도 3분기(7~9월) 중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중국경제 불안 지속가능성과 6월 영국의 유로존이탈(브렉시트·Brexit) 우려, 중국 본토 주식의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 편입 가능성 등이 최근 원·달러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기준금리 vs 환율



◇1180원이 단기 균형 =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외국계은행 본부장은 "한은의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비롯해 달러 매수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많다. 원·달러 상단에서 달러를 매도하기보다는 하단에서 저가 매수하겠다는 심리들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13일로 다가온 한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이 결정될 경우 실망감에 원·달러가 단기고점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건형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금통위 금리 결정과 별개로 원·달러가 이미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없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의 단기 고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금리인상 여부와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1180원대가 단기균형일 것이란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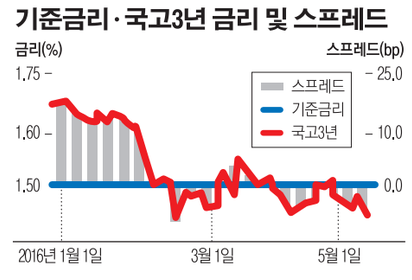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에 미국 금리인상이 미뤄지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했었다. 최근 이를 되돌림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타 국가와 통화정책상 차별화를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가 관건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리스크나 중국 위안화의 큰 폭 절하 등 돌발변수가 없는 이상 원·달러는 1180원에서 적정환율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모레 한은 금통위는 '금리동결' 예상되지만…

채권금리 역대최저 "곧 인하" 기정사실화

기준금리·국고3년 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이 연일 랠리다. 10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2년물과 국고채 3년물 및 5년물의 경우 각각 1.415%, 1.412%, 1.521%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5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간 금리 역전폭도 8.8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지난해 3월 11일(-9.3bp)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간 금리는 20bp 차이를 보이는 게 정상 수준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 금리만 놓고 보면 이미 기준금리 25bp 인하 한번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도 금리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최근 채권 현·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강화하며 채권 강세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이다.

실제 외국인은 3년과 10년 국채 선물시장에서 각각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년 선물은 3만1082계약을, 10년 선물은 8051계약을 순매수했다. 1계약의 가치는 3년 선물의 경우 1억원으로 보통 레버리지를 통해 12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수준이다.

현물시장인 장외채권시장에서도 기준금리에 민감한 통안채와 국고채 3년물을 위주로 매수했다. 통안채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817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작년 11월 23일 9000억원 순매수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만장일치 동결을 기대하는 역설 =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랠리에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히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빌미로 조정을 보일 경우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의 채권운용 본부장은 "만장일치 동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국형 양적완화와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만장일치 동결이더라도 외국인이 쉽게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채권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중 금리인하에 손을 든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강력한 금리인하 신호가 될 것으로 봤다. 한 외국계은행 본부장은 "4명의 금통위원이 새로 부임한 후 첫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다. 인하에 소수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강력한 금리인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의 정책조합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정책 공조를 조건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정부가 빠르게 구조조정과 재정보강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5월 인하를 주장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경영권 분쟁' 계기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려 추진
계류 3건 폐기 수순… 중간금융지주사 도입도 불투명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 방안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에 진척이 없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무위 회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롯데법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법은 롯데 사태 당시 정치권이 우르르 나서 발의했다가 사건이 사그라지자 쟁점 밖으로 밀려난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안은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앞서 이 의원은 해외법인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기업 자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작성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경우 광윤사, L투자회사 같은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롯데그룹은 일본계열사가 총수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주주'라고 공시, 자료제출 의무를 피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일가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앞세워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롯데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김의중 기자 zerg@

니코틴 함량따라 稅 부과
전자담배 가격 인상될 듯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해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 용액의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 업체들이 세 부담을 줄이고자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개편하고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전자담배 과세체계는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부피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만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니코틴 원액 1㎖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니코틴 희석액 20㎖로 따로 팔면 1799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분리형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혼합형 판매를 의무화하면 세금은 3만 5980원까지 늘어난다.

니코틴 용액 1㎖에 3~5㎎의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기재부가 니코틴 함량을 2%(20㎎/㎖)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율 인상이 아닌 부과 방식 변경이므로 세수 증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2018년부터는 안돼요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현 기자 holjjak@

한전·석유公, 나이지리아 자원개발 7년째 표류

현지 정부 돌연 중단… 소송 중
"사업 추진 위해 대화 지속할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 중이다. 현지 정부와의 소송으로 사업 중단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11일 한전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양사가 추진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탐사사업은 2009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한전, 대우조선해양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2006년 3월 해상 광구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해상 탐사 외에도 나이지리아에 2250MW급 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2009년 탐사에 돌입해 자원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그해 새로 집권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업 무효를 선언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몰수하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현재 투자금 회수 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은 1억 5000만 달러(1757억원) 규모로, 해당 컨소시엄은 탐사 사업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현지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중단이 장기화했으나 2014년 우리 측은 현지 정부와 만나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전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으로 인해 현재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법률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금, 차입금, 선수금의 상환이나 반환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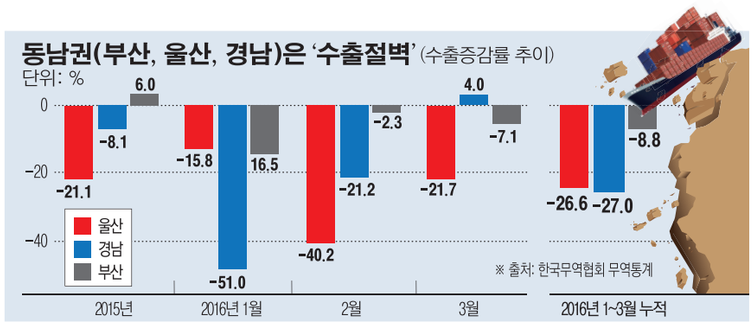
조선·해운 부진에… 부경울 고용 이어 수출도 위기감

〈부산·경남·울산〉

경남·울산 1분기 수출액 27%↓
부산도 올 들어 마이너스 행진
선박 수주 저조 향후가 더 문제

조선과 해운업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력산업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경남·울산 등 동남권 경제벨트는 고용에 이어 수출도 절벽에 내몰렸다.

11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남지역의 누적 수출액은 9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0%나 줄었다. 울산 지역(146억 7000만달러)은 지난해 1분기보다 26.6% 줄었다. 경남과 울산지역은 지난해에도 수출이 각각 8.1%, 21.1% 줄었지만 올해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동남권 경제권에 속해 있는 부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0% 성장했던 부산지역 수출은 올해 들어 1월 -16.5%, 2월 -2.3%, 3월 -7.1% 등으로 감소하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동남권 수출이 올해 들어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된 지역산업인 조선과 해운업을 비롯해 기계·철강·석유화학산업이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휘청거린 탓이 컸다. 특히 울산의 경우 3월 선박 수출은 급증세를 보였던 전년 동월 대비 기저효과에 따라 68% 줄어든 6억4700만 달러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인도가 집중돼 20억2000달러를 수출한 작년 3월과 달리 상선 위주의 인도가 주를 이루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 품목 모두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수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하다. 평년 대비 20분의 1 수준이다. 수주 급감은 곧바로 13대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선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대 국회 경제통에 듣는다 ⑩ 김진표

정부·재벌·금융권 수십년 유착
이래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안돼

오너·대주주·경영주 책임 물어야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 첨단산업 유치



"대기업 구조조정이 잘 안되는 것은 정부·재벌·금융권이 수십 년에 걸쳐 유착돼 있기 때문이다. 재벌 오너·대주주·경영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선·해운 등 한계기업에 수십 조 원이 물려 있다. 정부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관 등을 역임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치권의 대표적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당선인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원인이 정부·재벌·금융권의 유착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계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봤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의 경제정책을 8년간 펼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국책은행들은 재벌에 뒷돈 대기 바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금융권이 철저히 잘 한다. 그런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재벌들이 '왜 나 혼자 죽냐'며 물고 늘어진다"면서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10대 재벌 중심의 재벌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걸 줄이고 대신 청년실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직업군인·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다. 김 당선인은 "10조원을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나겠나. 우리 대기업들은 투자를 안 한다"면서 "그 돈을 전부 다 회수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조원만 빼도 당장 추경을 해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 사회가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

〈매출〉

김영란법에 외식가 4조 날아갈판

외식산업연구원 "전체 업체 37%가 영향받을 것"

9월 말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1000명의 외식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해 35.9%는 '필요하다', 29.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6%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사접대 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수천억 헛돈 쓴 정부

대기오염원 제대로 파악 못해
측정기기 허용 오차율 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이 제대로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추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만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남동풍이 부는 7~10월에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영향 정도는 미세먼지가 3~21%, 초미세먼지는 4~28% 정도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관리도 허술했다.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

北 김일성 광장 청년 횃불행진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폐막을 축하하기 위한 대규모 야회(무도회)와 횃불행진 행사에서 북한의 청년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가습기 사건 전환점 돼야”

소송 대리 맡은 ‘피해자 가족’ 우승하 변호사

큰아들 폐렴 악화로 섬유화 3~4등급

인과관계 입증 위한 인력·비용 부족

현재 상황서 받을수 있는 위자료 1억

입증책임 전환 등 법제도 뒷받침 필요



“피해자 가족들의 공통점은 모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하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항상 울면서 말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자 소송대리를 맡은 우승하(사진·38·변시 2회) 변호사는 지난 4일 오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변호사 역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렴 증세가 악화된 첫째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소장 접수 당시 로스쿨생이었던 우 변호사는 4년차 변호사가 됐고, 네 살이었던 첫째 아들은 그 사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 변호사의 아들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3~4등급에 속한다. 피해자 등급은 폐섬유화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단순한 폐질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여기에 투입될 전문인력과 연구비용이 부족했다. 지난 6년간 관계 부처는 서로 관할 책임을 미루고, 제조·판매업체 역시 이렇다 할 사과 없이 시간끌기 전략을 택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우 변호사는 한계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기존 법제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기에 최선은 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 없어 괴로웠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가족이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었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수사권과 감사권, 처벌권이 없는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검찰 수사로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은 지금보다 더 다각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우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가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살균제 유해성 연구결과 은폐·조작 등의 정황이 포착된 만큼 소송에서 추가로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려면 법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범위는 최대 1억원선이다.

우 변호사는 △제작자가 잘못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원의 위자료 상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기업범죄 감시기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변호사가 맡고 있는 민사소송은 5년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출국금지

해양 플랜트 관련 2조원대 손실 은폐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이 출국금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고 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고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진정서 내용을 검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대 영업 손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2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은폐해 오다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사들의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잡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고 전 사장과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 은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

박대혁 ‘무허가 투자중개’ 혐의 벗었다

〈리딩투자증권 전 부회장〉

W저축은행 여신업무 관여 안해… 1심 무죄

허가 없이 투자중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은 박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리딩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과 리딩투자증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각종 업무현황(대출 및 투자, 여신업무 포함)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고, 박 전 부회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곧바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최 판사 판단이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리딩투자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부서와 수익 창출 부서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 △리딩투자증권이 2009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정운호 원정도박’ 무혐의 입김? 홍만표 압수수색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014년 정 대표 변론… 수사 개입 의혹

검사장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도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0일 서울 서초동 홍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수임 자료, 일지 등을 확보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씨와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외에 2014년에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같은해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카오 도박장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결국 100억원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때 수사를 진행할 때도 정 대표가 회사 돈을 유용해 도박자금에 사용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김경수 전 고검장, 최재경 전 검사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로 불렸다.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3000억 가로챈 다단계 적발

멤버십에 가입해 투자를 할 경우 무려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2만4000여명을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 등)로 멤버십 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멤버십 가입 후 투자를 하면 6주 동안 매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2만4000여명에게서 29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7개 은행 9개 지점에서 약 40억원의 부정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시중은행 전(前) 지점장 김모(53·구속)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현대상선 채권단, 7600억 출자전환 추진

다음주 말께 안건 상정키로
용선료 25% 인하 성공 조건
사채권자 채무연장도 청신호

채권단이 76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현대상선 채무재조정 방안을 다음주 중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현대상선이 총 용선료 25% 이상 인하에 성공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마련한 채무재조정 방안 역시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협약채권의 50~60%를 출자전환하고 이자를 1~2% 가량 낮춰주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안건을 다음주 말경 채권단 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상선 협약채권 중 일반채권의 60%,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채권의 50%를 각각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채무는 10년 만기 조건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협약채권 총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일반채권은 6000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총 출자전환액은 약 76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중인 만큼 해당 안건은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받아야 가결된다. 채권단은 다음주 말경 안건을 부의하고 채권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보다 채권단이 높은 비율의 출자전환으로 손실분담을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용선료 협상을 봐가면서 다음주 쯤 출자전환 안건 부의를 할 계획이다"며 "이달 말에 있을 사채권자 집회도 채무재조정 방안이 통과되면 큰 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재소집되는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지난 3월 부결된 12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채무 연장을 논의한다.

현재 현대상선은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들을 상대로 용선료 20~30% 인하를 목표로 협상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총 용선료 인하율 목표치를 28%대로 잡고 있으며, 과거 선주로부터 기할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5%까지는 용선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선료 협상 시한은 이달 중하순께로 점쳐지는 만큼, 현대상선의 명운도 이달 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시한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기존에도 언급했지만 협상이 잘 안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나라사랑 카드 주요 혜택 비교

※ 출처: 각 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보험서비스	–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 5000만원 – 일반사고 상해 5000만원, 대중교통상해 1억원	– 일반상해 1000만원, 대중교통상해 5000만원
병영 내 할인혜택	– 군마트(PX), GS25(해군마트) 5~20% 환급 할인(월 최대 5만원) – GS25, GS슈퍼마켓 5~20% 할인 ※전월 이용실적 조건 없음	– 군마트(PX), GS25(해군마트), CU10% 청구 할인(월 최대 2000원) – CU 5% 현장할인(1일 1회) ※전월 이용실적 8만원 이상 시
병영 외 할인혜택	– CGV 35% 환급 할인 (건당 최대 7000원) –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환급 할인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 CGV 3000원 현장할인(동반 1인 포함) – 주요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 KTX, 고속버스 5% 청구할인 ※전월 이용실적 8만원 이상 시

'나라사랑 카드'로 충성고객 잡는다

국민·기업銀, 10년간 사업권 운영
'미래고객 확보' 마케팅 물밑경쟁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군 장병들을 위한 '나라사랑 카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은행권, 병무청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신상품을 출시한 후 5개월 동안 12만명의 군 장병(예비 장병 포함)이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았다.

나라사랑 카드 발급 사업은 신한은행이 2005년부터 10년간 독점해오다 지난해 6월 국민은행, 기업은행 복수사업자가 새로 선정됐다.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앞으로 10년간 나라사랑 카드 사업권을 운영한다.

나라사랑 카드는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징병검사 시 발급해 징병검사 여비, 군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의 입금계좌로 사용되는 체크카드 겸 전자통장이다.

은행 입장에서 나라사랑 카드는 사업 자체로는 수익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예비 사회초년생 선점을 통해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은행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나라사랑 카드 사업은 젊은층을 선점, 미래가치에 투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개인 고객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기회"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라사랑 카드는 군 장병이 원하는 카드를 은행별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더욱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대체적으로 국민은행은 병영 내 혜택에 집중한 반면 기업은행은 휴가 등 군 장병들이 병영 외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의 시설까지 신경을 썼다. 군 장병들은 두 은행의 나라사랑 카드를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기업은행은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군 장병의 경우 국내 모든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장효진 기자 js62@

동부건설 새주인 찾기… 유암코·키스톤 '2파전'

매각가 2000억 안팎 예상… 이번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 본입찰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두 곳이 참여했다. 키스톤PE가 유암코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동부건설 본입찰 결과 총 두군데가 참여했다"며 "인수 조건 등을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입찰 참여자는 키스톤PE와 유암코이며, 두 곳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다. 다만 키스톤PE는 한국토지신탁이 LP(유한출자자)로 함께한다.

키스톤PE가 유암코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수·합병 관계자는 "키스톤과 유암코가 대략 100억원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시 가격 외에 유상증자 비율, 회사채 비율 등 비가격 요소가 고려되므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매각 가격은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늦어도 이번주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말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선정됐으나 동부익스프레스의 후순위채권 500억원의 가치평가 관련 매각가를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매각에 나선 동부건설은 지난달 6일 마감된 예비입찰에서 사모펀드(PEF) 업체와 중견건설사 등 총 9곳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시공능력순위 25위인 중견 건설사로 법정관리 건설사 중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회사로 평가된다. 앞서 동부건설을 실사한 삼정KPMG는 이 회사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각각 3826억원, 4102억원으로 추산해 회생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황윤주·홍샛별 hyj@etoday.co.kr

대부업 뺨치던 카드이자, 내릴땐 '찔끔'

카드사 줄줄이 금리인하… 생색내기용 그쳐 눈총

신용카드사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카드 단기 대출(현금서비스)과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했다.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연 26.64%에서 연 26.2%로 0.44%포인트 낮췄고 일시불에 대한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24.94%에서 연 24.9%로,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25.94%에서 연 25.9%로 각각 0.04%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장기 대출(카드론)과 할부수수료, 연체이자율의 최고금리는 각각 연 24.7%, 연 20.9%, 연 27.9%로 변화가 없다.

카드사들은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와 연 20%대 수준인 카드사 대출금리가 별 차이가 없게 되자 안팎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금리를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도 각각 연 27.0%에서 26.5%로 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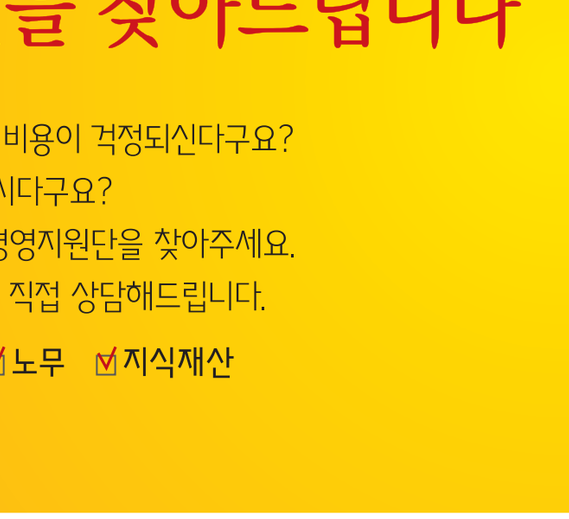
현대카드도 다음 달 15일부터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7.5%에서 26.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27.5%→26.5%)과 일시불 리볼빙(26.5%→24.5%) 최고금리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금리를 낮춰도 인하폭이 작은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런 식의 금리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일종의 보여주기식 금리 정책"이라며 "실제 조달금리가 내려간 만큼 금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고객들도 카드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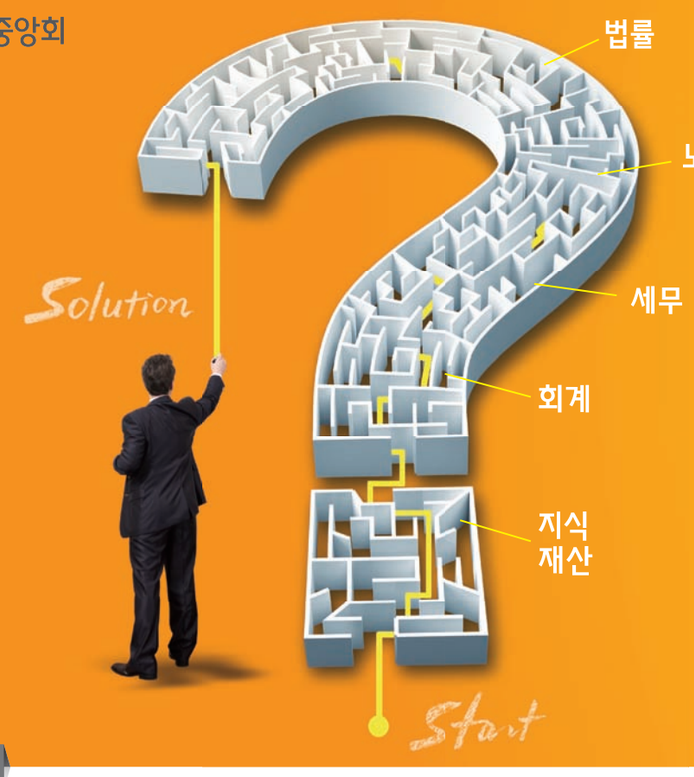
박규준 기자 abc84@

BNK경남은행 '상생결제론' 출시



BNK경남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출 상품인 '상생결제론'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생결제론은 대기업 등 구매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4차 협력기업에도 매출채권 재발행이 가능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해 1~4차 협력기업에까지 대기업이 약정 체결한 금리로 조기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회계 ☑세무 ☑노무 ☑지식재산

상담 받으시는 방법!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대 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상 담 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사이버종합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연 1회에 한함.

지원 분야!

☑법률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노무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세무
기장대행(회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 재산권 가치평가 등

무료상담 1666-9976 / www.kbiz.or.kr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금융개혁 국민의 재산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일임형 ISA로 전문성, 수익성에 안정성까지 한방에 누려라



종합자산관리에서 절세혜택까지 더해 더욱 든든해진 KB국민 만능ISA

일임형 절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산관리는 계좌 하나로 **더욱 간편하게**

고객맞춤형 모델 포트폴리오로 **더욱 적합하게**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세(稅)테크에서 재(財)테크까지 **더욱 유리하게**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의무가입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형: 3년)

비과세한도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

납입한도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

• 이 계좌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일임수수료(*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영업점에서 가입 시 평균잔액의 연0.1~연0.6%, 온라인에서 가입 시 평균잔액의 연0.1~연0.4%)가 발생됩니다. • 이 상품은 특별중도해지를 제외한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15.4%)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 변경하거나 특정상품의 편입 등을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 내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 후 5년 후에 자동 해지됩니다. 투자상품의 경우 5년 만기 시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9호 (2016.4.1) / 게시기한 : 2017. 4. 30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1844호(2016.4.8~2017.4.3)]

KB 국민은행

넥스트 차이나… 삼성전자, '인도' 정조준

현지화 제품으로 LCD TV·스마트폰 교체수요 공략
의료기기·헬스케어 전초기지 목표로 사업 확대 나서

'메이크 포 인디아(Make for India)'.

삼성전자가 철저한 현지화 방식을 통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TV와 가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헬스케어 사업 등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폭넓은 잠재 수요를 갖춘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TV와 스마트폰 담당 사업부는 기존 북미와 유럽 등에서 인도 페루 이란 등 제3국을 새로운 소비 타깃으로 삼고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구 12억명에 달하는 세계 제2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상위 1% 초(超)프리미엄 시장부터 보급형 시장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가진 차세대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뒤늦게 진입한 인도 TV 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 맞춤형 제품 생산 및 유통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임원들은 올해 초 사업 점검차 인도를 방문, 현지 공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마라톤 회의를 하는 등 인도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는 LCD(액정표시장치) TV 보급률이 14% 수준에 그치는 등 CRT(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의 교체 수요가 높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TV 시장에서 27~28%의 점유율로 1위이며 소니와 LG전자가 각각 1~2%포인트, 3~4%포인트로 차이로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공략

지난해 서남아총괄에 온라인영업팀 신설 · 주력 사업부에 온라인 전담조직 구축
현지 상품기획 · 개발 및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

스마트폰 네트워크
- 2015년 1월 최초 타이젠폰 '삼성 Z1' 및 '갤럭시E5 · 7', '갤럭시A3 · 5' 출시
- 7월 '갤럭시J5 · 7' 출시
- 9월 '갤럭시J2' 출시
- 10월 '삼성 Z3' 출시
- 11월 '갤럭시온5 · 7' 출시
- 2016년 5월 2016년형 '갤럭시J5 · 7' 출시
- LTE 네트워크 구축 인도 국책사업 참여

TV
- CRT(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의 교체 수요 공략

의료기기
- 의료기기 사업 시작, 향후 모바일과의 연동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 확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28.8% 점유율(출하량 기준)로 선두를 유지했다. 지난해 출시한 자체 OS(운영체제) 기반 타이젠 폰 '삼성Z 시리즈'와 '갤럭시J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약진의 결과다.

인도는 삼성이 신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의료기기, 나아가 헬스케어 사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도 기대되는 곳이다. 삼성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해 점차 모바일과 연동하는 헬스케어 사업까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인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4.2%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서남아총괄에 온라인영업팀을 신설하고 주력 사업부에 온라인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인도 현지 상품기획·개발 및 온라인 유통채널을 강화했다.

지난 4일과 10일에는 삼성그룹 사내방송으로 '넥스트 차이나 인도 편: 1부 깨어나는 코끼리 인도'와 '2부 기회와 혼돈의 땅' 등을 각각 방영하며 임직원들과 인도의 성장잠재력,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했다. 방송에는 중국과 인도의 저가 폰에 맞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략과 3조원 규모의 인도 LTE 통신 인프라 사업,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영 기자 gutjy@

중동發 성장전략 속도내는 SK그룹

최태원 "쿠웨이트와 협력 강화"

〈SK그룹 회장〉

자베르 총리 만나 에너지·화학·ICT·반도체·인프라 비즈니스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란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동을 발판으로 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자베르 무바라크 알 하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총리와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자베르 총리의 면담에는 최 회장 외에 정철길 SK에너지·화학위원장(SK이노베이션 부회장 겸임)과 유정준 SK글로벌성장위원장(SK E&S 사장 겸임) 등이 배석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인 KPC와 원유도입, 대규모 플랜트 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SK그룹은 한국과 쿠웨이트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차원에서 성장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은 자베르 총리 면담에 이어 아나스 알 살레 쿠웨이트 석유부장관 겸 KPC 회장과도 따로 만나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SK그룹은 9일 자베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KPC와 '석유·가스 및 에너지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특히 MOU를 체결한 KPC는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국영기업으로, 원유 생산량 기준 세계 8위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여서 SK그룹은 중동지역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왼쪽)이 10일 자베르 쿠웨이트 총리와 에너지·화학, 신에너지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SK그룹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최 회장을 비롯해 국내 기업 중 최대 인원이 경제사절단으로 이란을 방문, △에너지·자원 △ICT △도시 인프라 등 3대 분야에 글로벌 파트너링 기반을 강화한 것도 중동의 성장기회 때문이다. SK그룹은 이란, 쿠웨이트 외에 대표적인 중동 자원부국인 사우디 최대 화학기업 사빅과 넥슬렌 공장을 울산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화학 비즈니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라며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SK그룹의 핵심 사업분야인 에너지·화학, ICT, 반도체, 인프라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제네시스·쏘나타 美서 '스크린 마케팅'

마블 영화 출연 소비자에 눈도장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 소비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슈퍼히어로(Superhero)를 동원한 스크린 마케팅에 본격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영화 및 만화 제작사인 마블사,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2년간 계약해 미국의 인기 슈퍼히어로 드라마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루크 케이지' 등 마블사의 대표적인 영웅물에 차량을 출연시키고 있다.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고 있는 '데어데블'에는 제네시스 G80과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며, 이들 차량은 올해 9월부터 방영될 '루크 케이지'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제시카 존스'에도 등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스크린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자동차의 드라마, 영화 PPL(간접광고)은 차의 디자인, 기술, 주행모습 등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 헐리웃 영화에 등장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2004년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 주연의 두 번째 '본 시리즈'인 '본 슈프리머시'에 나온 EF쏘나타가 대표적이다. 이후 2010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인 '인셉션'에 제네시스가 등장, 영화 마케팅으로 회자가 되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SKT,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케이크'



SK텔레콤은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케이크'를 출시하고, 가족 고객이 등록하면 매월 최대 1000MB 데이터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족나눔데이터'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크는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가족간 앱 연동을 통해 △가족간 위치·시간 메시지 △편리한 사진·일정 공유 △생생한 가족 나들이 정보 △가족나눔데이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구글 '캠퍼스서울' 1년… IT창업 메카로 우뚝

회원 1만3000여명… 총 16개 스타트업 121억 투자유치 성과

구글이 아시아 처음으로 서울에 설립한 '캠퍼스서울'이 개관 1년이 지나 국내 스타트업 IT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 문을 연 구글캠퍼스 서울의 1주년을 맞아 구글은 10일 기념 행사를 갖고 "설립 1년 만에 1만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창업 요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1년간 450개 이상의 창업 관련 행사가 진행됐으며, 총 2만여명 이상의 창업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인맥을 쌓았다.

현재 구글 캠퍼스서울에는 7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설립 초기부터 입주해 졸업한 스타트업까지 포함하면 총 16곳의 스타트업이 이곳을 거점으로 지나쳤거나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1년간 투자 유치금액은 총 121억원에 달한다. 특히 500스타트업, 스트롱벤처스 등 파트너사들도 이곳에 입주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서울은 1년만에 업계에서 꼽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톱 5곳에 포함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이곳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역시 다양한 성과를 내며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개인화 뉴스추천 서비스 '데이블 뉴스'를 서비스하는 데이블은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채현 데이블 대표는 "캠퍼스 서울에서의 경험은 창업가들과 한 공간에서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배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멋진 경험"이라고 경험담을 밝혔다.

임정민 캠퍼스서울 총괄은 "스타트업과 계속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서울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中·필리핀 이어… 미스터피자, 태국 공략

방콕 첫 매장 스트리트몰점 오픈… 올해 5개 점포 예정

토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가 동남아 한류 중심지 태국 방콕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태국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MPK그룹은 10일 태국 방콕에 미스터피자 스트리트몰점(사진)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의 이번 태국 스트리트몰점 개설은 지난해 필리핀 진출에 이은 두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이다. 미스터피자는 스트리트몰점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방콕 칸나야오지구 프로메나드몰에 2호점을 개점하는 등 연내 태국에 5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한 스트리트몰점은 방콕 최대 번화가로 불리는 라차다로드 지역에 위치한 스트리트몰에 자리 잡았다. 스트리트몰은 타이랜드컬쳐역 인근에 자리한 대형 쇼핑몰로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만명에 이르는 지역 명소다. 특히 미스터피자 매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지하 1층 쇼핑존에 입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동희 MPK그룹 글로벌본부 이사는 "태국은 매년 수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으로 미스터피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미스터피자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대우조선 'LNG 화물창 시스템' 개발

척당 120억 상당 로열티 절감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인 'DCS16'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선을 건조하면서도 핵심 기술인 화물창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외국에 지불하던 척당 120억원 상당의 로열티 절감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주 입장에서도 발주 시 기존 시스템과 DCS16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DCS16은 이미 국내·외 선급들로부터 제약조건 없는 설계 승인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IGC 규정을 충족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했다. 미국 LNG선 수출의 핵심사항인 미국 해양경비대(USCG) 승인도 실제 선박 수주 체결 시 이뤄질 최종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으로 DCS16은 이미 선주사 등 시장의 관심도 받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 쉘사가 자사 LNG 프로젝트에 DCS16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 내 쉘의 위상을 고려하면 승인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CS16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해외업체에 지급하던 로열티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술 판매 등을 통한 인증료 수익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LNG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냈다"며 "로열티가 없는 독립 기술인 DCS16를 활용해 LNG 산업 분야 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산학연 전체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고령화시대' 치매치료제 개발 나선 제약사들

일동제약·메디포스트 등 임상 진행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치매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인구는 지난해 약 4680만명에 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억3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치매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8.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치매센터는 파킨슨병 치료제 DA-9805은 미국 FDA에 올해 임상 2상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천연물을 이용한 치매치료제 연구도 진행중이다. 일동제약도 멀구슬나무의 열매인 천련자에서 물질을 추출한 치매치료제 ID 1201의 임상 2상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치료제 뉴로스템의 1·2A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은 리바스티그민을 이용한 패치형 치매치료제 SID710을 최초로 개발해 최근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정안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기획단 연구원은 "기존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 개발 중인 신약들은 증상의 진행을 예방·둔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쇼핑부터 외식·문화체험까지

"몰링족 잡아라"



차세대 성장동력 '복합쇼핑몰' 경쟁

신동빈·정지선·정용진 유통 빅3 수장

고객 편의시설 직접 챙기고 작명까지

신세계 9월 하남 첫선 "年 매출 1조"

신세계·롯데·현대 등 유통3사가 복합쇼핑몰로 격전을 치르고 있다. 쇼핑뿐만 아니라 식사,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 곳에서 동시에 즐기는 '몰링족'을 잡기 위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아웃렛, 아웃렛에서 대형마트로 이어진 유통업계의 성장동력이 백화점·호텔·마트·아웃렛 등을 한꺼번에 입점시키는 복합쇼핑몰로 진화하고 있다.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제 2도약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신세계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9월 하남에 쇼핑테마파크 개관을 시작으로 복합쇼핑몰 형태의 테마파크를 선보이고 연 매출 1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백화점 업계 2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정용진 부회장이 챙기고 있는 사업으로 '스타필드' 명칭도 직접 지어 눈길을 끌었다.

스타필드 하남 규모는 연면적 45만9498㎡(13만8900평), 부지면적 11만7990㎡(3만6000평)로 축구장 70개 크기다. 정 부회장은 "가족과 연인 단위의 쇼핑객이 늘고 있는데 도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유통업의 경쟁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으로 복합쇼핑몰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만들자"며 그룹의 성장동력을 복합쇼핑몰로 지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프리미엄아울렛을 열고 올해 매출 2400억원, 내년 3500억원 계획을 세웠다. 정 회장은 송도국제도시만의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차별화 요소가 있다고 판단, 매장 인테리어와 고객 편의시설을 일일이 챙겼다.

롯데백화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진두지휘하며 복합쇼핑몰 건설사업을 지방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일 산본에 개점한 '롯데피트인' 복합쇼핑몰에는 첫날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다. 롯데는 오는 12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이보다 규모가 큰 '롯데몰'을 열고, 내년에는 경기 파주, 의왕, 오산시, 송도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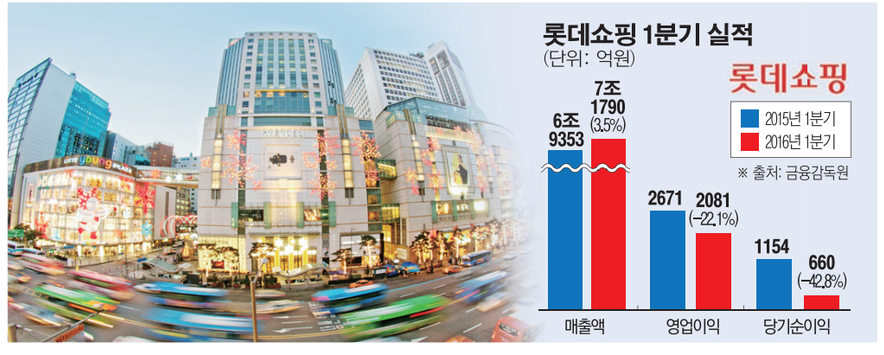
롯데쇼핑 '1조 클럽' 재가입 불투명

올 1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22% 떨어져

마트 62% 줄고 백화점은 1.2% 늘어

중국 할인점 사업 240억원 손실 한몫

2분기 턴어라운드… '소비심리'가 변수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로 시장에 충격을 안긴 롯데쇼핑이 올 들어서도 '어닝쇼크'에 빠졌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내려앉아 '1조 클럽'에서 탈락한 롯데쇼핑은 올해 재가입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1분기 성적표 공개 이후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11일 롯데그룹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7조1790억원, 영업이익은 22.1% 감소한 208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42.8% 줄어 66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부문 별로는 할인점(롯데마트) 매출이 2조1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기준으로 1.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2.5% 줄어든 60억원에 그쳤다. 국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한 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해외에서도 중국 할인점 사업 악화 등 240억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국내외에서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매출(2조1660억원)과 영업이익(1450억원)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3.4%, 1.2%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충격적인 성적표에 이은 실적이어서 롯데쇼핑을 향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감소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못미친 실적이다. 당기순손실도 3461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 또한 지난 2006년 상장 이후 첫 순손실이다.

지난해 결산이 나올 때만 해도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점진적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롯데쇼핑도 "지난해 큰 손실 요인이었던 중국 사업 영업권 차손이 모두 상각된 만큼 올해 해외사업 실적 악화 우려는 줄어들었다"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는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수익 둔화, 편의점 성장세 둔화, 소비심리 악화를 그 이유로 꼽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의한 실적 기저효과로 턴언라운드가 전망되지만, 소비심리 변화가 올해 1조 클럽 재가입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업의 프로모션 강도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가 향후 실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왼쪽부터 로드스테이크, 쿠키몬스터, 올코코, 홉슈

※ 사진제공: AK플라자

"맛있고 예쁜 디저트, 백화점에 多 있어요"

'디저트 노마드족' 늘며 식품관 매출 신장 주도

지역 브랜드 팝업스토어 열고 컬렉션 행사도

백화점이 디저트 브랜드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저트를 찾아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 이른바 '디저트 노마드족'이 늘어나면서 백화점 식품관 매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지역 유명 디저트 브랜드를 팝업스토어 형태를 통해 테스팅 베드로 활용하는가 하면, 정식 입점해 식품관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11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유명 디저트인 삼송빵집, 홉슈크림, 비스테까 등을 선보인 영등포점의 고객 수는 4월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만명가량 늘어났다. 신세계백화점 전체 식품 매출신장은 6%에 그친 반면, 영등포점 식품 매출은 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K플라자 수원AK타운점 역시 지난 2일부터 'AK푸드홀'의 디저트관에 신규 맛집 디저트 브랜드 6개를 추가 입점해 디저트 MD를 대폭 강화했다.

현대백화점은 지역 빵집을 체험형 문화 행사를 열어 차별화를 기했다. 가맹점형 베이커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빵집을 지칭하는 용어인 '윈도 베이커리'를 내세웠다. 이는 상품 판매 목적이 아니지만, 신규 브랜드 발굴 기회로도 확장된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무역센터점에서 진행한 '윈도 베이커리 컬렉션'에 약 3200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열띤 반응을 입증했다.

박소영 현대백화점 공산품팀 바이어는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비제도권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중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디저트 브랜드를 찾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O2O서비스까지 가세했다. 현대백화점의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은 지난 3월 화이트데이 시즌에 압구정본점에서 '디저트 스토어픽'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의류·잡화·화장품 품목에 한했으나, 디저트 수요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몽슈슈 등 유명 디저트 브랜드는 평소 20분 이상 줄을 서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논란

규제개혁위 "자율배치" 권고에 금연단체·판매인회 '갑론을박'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기존 상단이 아닌 자율 배치로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 측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목적은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꼭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담배를 비롯한 이외 제품들의 판매가 줄어 심각한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판매인회 등은 특히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정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 FCTC 당사국 중 다수의 국가가 하단에 배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FCTC 당사국 180개국 중 경고그림을 시행하는 국가는 80개이며, 이 중 경고그림이 하단에 위치한 나라도 약 3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경고그림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규개위의 심사 여부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제조사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에서 찾은 체지방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쉽게 붙는 건
몸 속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몸 속 변화를 읽으면 필요한 솔루션이 보입니다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를 연구한 메타그린,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드립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유명 백화점 설화수, 헤라 매장, www.amorepacific.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 080-023-5454

V=B VITALBEAUTIE

상장건설사 1분기 '호실적' 거뒀지만…

회사채 시장에선 여전히 '찬밥 신세'

올 들어 1조6000억 만기 도래
대부분 자체 보유 현금 상환
건설채 투심 '꽁꽁'…발행 포기
저금리 영향 은행대출 더 선호

올해 1분기 대부분의 상장 건설사들은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채 시장에서는 관심을 못 받으며 만기 회사채를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올 들어 단 한 곳도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들어서만 삼성물산,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았지만 모두 자체 보유 현금으로 상환했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회사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 대신 현금상환을 택하는 것은 건설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됐기 때문이다. 회사채 대부분을 소화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건설사들이 갑작스럽게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건설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대림산업(A+), 롯데, SK, 한화건설 등이 총 1조50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저금리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기관투자가의 매입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회사채를 발행한 현대산업개발 역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A등급)로 분류됐지만 당시 차환 발행에 겨우 성공했다. 그것도 당시 A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민평금리가 3% 미만이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연 4.492%의 고금리로 발행에 성공했다.

때문에 주요 건설사들 상당수가 올해 들어 자체 현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빚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평순위 1위인 삼성물산도 건설업계에서 신용등급(AA+)이 가장 우수하지만 지난 3월과 4월 각각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모두 현금상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최근 실적이 안 좋다 보니 부담이 돼서 현금으로 상환했다"면서 "향후 실적 개선이나 회사채 상황을 보고 회사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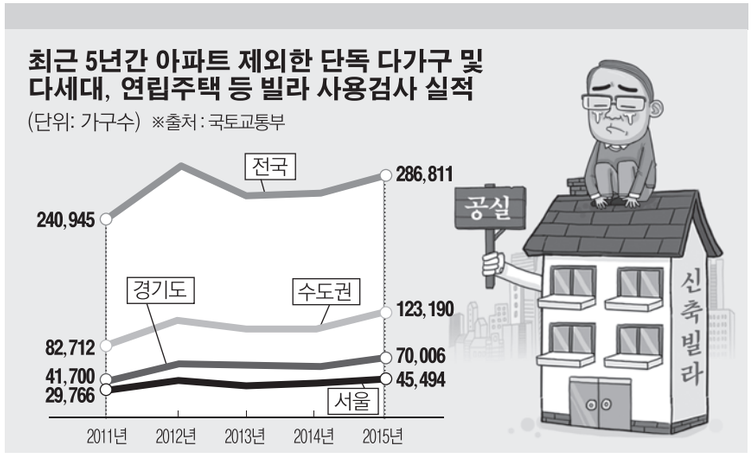
이외에도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 역시 건설사들이 현금상환에 나서는 이유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를 적게 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채 금리가 대출 이자보다 높아서 현금으로 갚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만기물량에 대해 현금상환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발행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은 만큼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도 현금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현금을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정작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잘나가던 빌라, 이젠 천덕꾸러기?

작년 2만 이상 늘어 28만여가구
완공된 빌라 수요 못미쳐 '공실'
전세난 여파에 큰 인기 얻었지만
시장 상황 나빠지자 거래량 급감
모집공고 안하면 미분양 통계 제외
공급과잉 진단체계 미흡 지적도

지난해 전세난으로 각광을 받았던 빌라가 공급과잉 우려에 부딪치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1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이 끝나 사용 검사를 완료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만699가구가 증가한 28만68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사용검사를 끝낸 다가구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수는 총 12만3190가구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역시 총 4만5494가구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실제 공급됐다. 이는 2011년 대비 1만5728건이 증가한 것으로 52%가량 늘어났다.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연립·다가구 등 신축 빌라의 인기는 전세난과 함께 주택 경기 훈풍에 힘입어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등 빌라 매매 거래량은 13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2만9065건이 거래됐으며 전년 대비 25.05%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의 거래량이 각각 46.58%, 41.52%로 늘어 수도권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시장 악화로 빌라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실로 남아 있는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올 1분기 건설 실적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 연립 등 빌라는 총 14만66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1586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 1, 2월 빌라 거래량은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B공인중개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빌라를 찾는 손님이 많았지만 지금은 빌라 매매도 끝물이다"며 "완공된 빌라 공실이 높아서 집주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동 K공인중개사는 "위치가 조금 좋지 않거나 시설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준공한 이후에 한 채도 팔지 못한 곳이 있다"며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빌라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 과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과잉 여부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0가구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정경진 기자 jungkj@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원)	최저 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임광관악파크 101동 20층 2004호	120	450,000,000	360,000,000	80%	6월 7일	중앙21	2015-15130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97 보라매두산위브 102동 2층 202호	137	680,000,000	544,000,000	80%	6월 7일	남부10	2015-100218
아파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6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12동 19층 1901호	118	838,000,000	670,400,000	80%	6월 8일	남부6	2015-13840
아파트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8 흑석동양 101동 9층 901호	60	411,000,000	328,800,000	80%	6월 9일	중앙11	2015-17907
아파트	서울 서초구 우면동 707 서초네이처힐1단지 107동 7층 701호	85	866,000,000	692,800,000	80%	6월 9일	중앙11	2015-18795
아파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꿈동산 1908동 12층 1201호	170	561,000,000	392,700,000	70%	6월 7일	부천1	2015-17635
아파트	경기 양주시 삼숭동 689 양주자이 707동 11층 1103호	123	262,000,000	183,400,000	70%	6월 7일	의정부7	2015-40008
아파트	경기 이천시 안흥동 469 ,470 이천안흥주공1단지 105동 9층 901호	60	185,000,000	129,500,000	70%	6월 8일	여주2	2015-14520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40 후곡마을 105동 16층 1604호	85	300,000,000	210,000,000	70%	6월 8일	고양9	2015-28377
아파트	인천 서구 마전동 1004 현대 102동 6층 606호	60	170,000,000	119,000,000	70%	6월 9일	인천22	2015-53270

※자료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7 임광관악파크 = 101동 2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9월 준공한 5개동 465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0층, 전용면적 119.96㎡이다. 물건 인근으로 관악산 생태공원, 난곡동 주민센터, 난곡우체국 등이 인접하다. 교육시설로는 난곡초, 난우초, 미성중, 남강중, 남강고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4억5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6000만원이다. 입찰은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2015-15130.



고양 장항지구에 행복주택 5500가구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특화… 용산역 등 22곳 1만3000가구 추가 건설

일산 킨텍스와 호수공원 인근 고양장항지구에 대단지 행복주택타운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1만3000호 규모의 행복주택 신규 입지도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양장항, 용산역, 서초성뒤마을 등 22곳에 1만3000호 규모의 행복주택 신규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양장항 공공주택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약 145만㎡(약 4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전체 부지 중 37%는 국유지이며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2개 특화 단지를 스마트 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등 행복주택 5500호가 공급된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등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2000호)는 중앙공원과 연접해 배치하고 단위 세대는 투룸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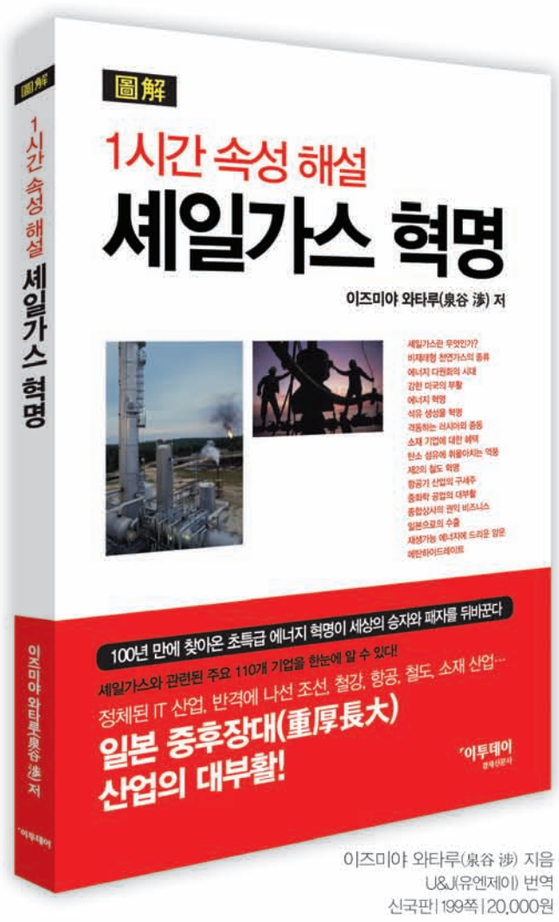
또한 사회초년생 특화단지(2000호)는 직주근접을 위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와 지구 외 개별공장 입지 지역과 연접해 배치한다. 나머지 1500호는 교육시설과 연접해 건설하고 대학생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사업 조감도.

이와 함께 용산역과 연접한 국유지(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는 행복주택 1000호가 건설된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행복주택을 건설·운영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국공유지, 공기업 토지 등을 활용해 전국 18곳에 6300호 입지를 신규로 확정했다.

구성헌·이정필 기자 carlove@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Borderless [경계없는, 국경없는]

생활의 판을 바꾸다

FAN

이제 카드의 경계가 사라진다

ON/OFF, 국내/국외, OLD/NEW
모든 구분 없이 생활을 하나로 연결, 결합하다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업종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활과 생활을 연결한 새로운 판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한번에

내 손안의 생활플랫폼
신한카드 [FAN]



신한카드 FAN (판)
간편 결제서비스를 넘어 금융과 생활, 생활과 생활이 결합된 신한카드만의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2,200만 빅데이타를 기반으로 신한카드 FAN프렌즈와 함께 생활의 판을 바꿉니다

FAN 신한카드
iPhone용 Android용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나
Google Play를 실행하신 후
신한카드 [FAN]을 검색하여 설치
* ios는 5월초 업데이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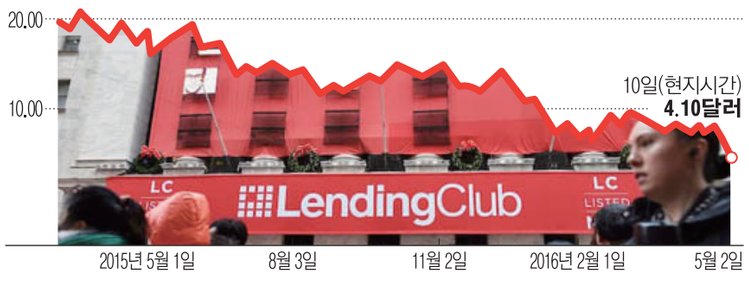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P2P 모델 '렌딩클럽' 부정대출 후폭풍

신용 낮은 개인대출 상품 판매
라플랑셰 CEO 부정 혐의 경질
투자자 핀테크 신뢰 흔들려
골드만삭스 등 채권 매입 중단
회사 주가 이틀새 46% 폭락

렌딩클럽 1년간 주가 추이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P2P) 대출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핀테크 벤처의 대표주자로 불려온 렌딩클럽의 공동 창업자 르노 라플랑셰 최고경영자(CEO)가 대출 채권 판매와 관련한 부정 혐의로 사실상 경질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렌딩클럽은 라플랑셰 CEO가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는 등 계약 조건이나 내규에 맞지 않는 형태로 2200만 달러(약 258억원) 규모의 대출 채권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라플랑셰 CEO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회사 주가는 35% 폭락했고 이틀날인 10일에도 11.26% 주저앉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라플랑셰 CEO의 사임이 온라인 P2P 대출을 취급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딩클럽은 돈이 필요한 개인과 여유자금을 불리고자 하는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사업 모델로 성장해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다. 투자은행 키프,브루예트앤즈의 렌딩클럽 담당인 줄리아나 발릭카는 "이번 사건이 업계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업계 대표 주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도 온라인 P2P 대출 사업 모델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재무부는 10일 보고서에서 스타트업들의 혁신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에 400개 가량인 관련 업체 대부분이 전체 신용 사이클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취약성의 이유로 들었다.

인터넷 대출 업체는 개인에게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은 대출금을 신용카드 채무 상환이나 결혼식 비용, 창업 자금으로 쓴다. 업체는 예탁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것이 못마땅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약 1년간 투자자 유치에 고전하고 있다. 유사 업체인 온덱크캐피털의 주가는 9일 4% 하락에 이어 10일에도 1.43% 떨어졌다.

급기야 골드만삭스와 제프리스는 라플랑셰 CEO의 사임을 이유로 렌딩클럽의 대출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래 제프리스는 렌딩클럽의 대출 약 1억5000만 달러어치를 증권화해 이달초부터 투자자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렌딩클럽이 기준에 못미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오바마, 美 현직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방문

27일 아베 동행… '핵 폐기' 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27일에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 측에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동행한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건 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원폭을 투하한 이후 71년만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걸어온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비핵화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에 아베 총리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원폭) 희생자들을 미일 양국이 함께 추도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탄핵심판 앞둔 호세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4회 여성정책회의에서 얼굴의 이물질을 닦아내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날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이 전날 했던 하원 탄핵안 표결 무효 선언을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탄핵안에 대해 11일 상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호세프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브라질리아/AFP연합뉴스

애플 부진에 재팬디스플레이도 '휘청'

아이폰 판매 줄며 작년 순손실 318억엔… 적자폭 3배로 커져

아이폰 판매 감소 등으로 애플이 휘청거리면서 핵심 부품업체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등 애플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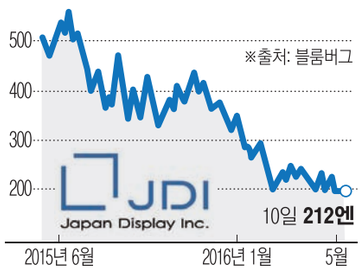
애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액정 패널을 공급하는 재팬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마감한 2015 회계연도에 318억 엔(약 341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전년의 123억 엔에서 적자폭이 세 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과 매출 등도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12일 최종적으로 실적을 발표한다.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의 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든 것이 재팬디스플레이 실적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511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국내외 부품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애플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아이폰 생산량을 전년보다 30%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애플 이외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에도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하면서 패널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엔화 가치가 오른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지난 분기 순손실 가운데 112억 엔은 엔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애플의 OLED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플이 도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수년 안에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OLED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WSJ는 전했다. 또 지난 3월 대만 혼하이정밀에 인수된 일본 내 경쟁사인 샤프도 OLED시장을 넘보고 있다.

재팬디스플레이 주가 추이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가 지난 2012년 소니와 도시바, 히타치 등 3사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합병시켜 재팬디스플레이가 탄생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지난 2014년 기업공개(IPO)를 단행했다. 재팬디스플레이 주가는 실적 부진과 암울한 전망 등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약 40% 하락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맥주 대명사 '버드와이저' 이젠 '아메리카'로 불러라

美 유통망 내… 대선 때까지 한시적

세계 최대 맥주제조업체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인베브)가 미국 맥주의 대명사인 '버드와이저(Budweiser)'를 '아메리카(America)'로 한시적으로 개명한다고 10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병맥주와 캔맥주에 담긴 특유의 흘림체로 쓰인 '버드와이저'를 당분간 볼 수 없게 된다.

AB인베브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버드와이저'를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꿔 유통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메리카' 라벨이 붙은 제품은 미국 내에서만 유통된다. 병과 캔의 디자인도 바뀐다. 회사는 아메리카라는 새 이름을 미국 국가(國歌)인 '성조기여 영원하라(The Star Spangled Banner)'와 함께 미국인들 사이에서 애창되는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의 일부 가사를 따와 배치할 예정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아마존 주가 '고공행진'… 베조스 주머니는 '빵빵'

703달러 마감… 1년새 62% 급등
베조스 순자산 617억달러로 늘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창업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52·사진)의 순자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주가는 전날보다 3.43% 급등한 703.07달러(약 82만원)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아마존의 주가가 7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2월 9일 기록한 올해 최저점(482.07달러)에서 무려 46% 올랐다. 1년간 62% 치솟았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2% 하락했다.

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베조스의 주머니도 두둑해졌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현재 베조스의 순자산 가치는 617억 달러로 세계 갑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베조스의 순자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샌포드번스타인의 카를로스 키르너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목표주가를 1000달러로 제시했다. 즉 향후 1년 내에 주가가 50% 가까이 뛸 것이란 의미다. 번스타인의 종전 목표주가는 770달러였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월가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마존 목표주가 평균치(809달러)를 훌쩍 웃도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세계 최고 철도 육성…안전 최우선 경영 펼칠 것"

노량진역 사고현장서 첫 업무 시작한 홍순만 코레일 사장

취임식서 임직원 다짐대회 열어
사장직속 안전관리 조직 운영
글로벌 경쟁력 위해 체질 개선
감동 서비스 등 5대 방침 제시

홍순만 코레일 신임 사장이 10일 새벽 전동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홍순만 사장이 임명 발령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전날 전동열차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노량진역을 방문해 관련 본부장들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어 오전 9시 대전 사옥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세계 최고의 철도 안전, 서비스, 경영 다짐대회'를 열었다. 홍 사장은 취임사에서 "반복되는 열차사고와 장애로 코레일의 안전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며 "사장 직속 안전관리 조직을 운영해 안전에 취약한 부문을 신속하게 발굴, 제거하고 타 교통시스템의 안전관리 방식을 반영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가오는 철도경쟁 체제라는 낯선 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대륙철도시대를 주도 할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계 최고의 철도운영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코레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홍 사장은 △전략적 업무체계 △철도안전 고도화 △국민감동 서비스 △지속발전 경영구조 △생산적 노사관계 등 5대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홍 사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임할 때 코레일의 도약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홍순만 코레일 신임 사장이 10일 노량진 전동열차 궤도이탈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본부장들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코레일

'남북 총리회담 주역' 강영훈 前 총리 별세

5·16 동참 거부했다 '반혁명 장성 1호'
1990년엔 평양에서 김일성 만나기도



10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강영훈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 간 총리회담을 성사시켰던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95세로 영면했다.

11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강영훈 전 총리는 전날 오후 3시 7분께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강 전 총리는 1922년 평안북도 창성 출신으로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등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5·16 군사정변을 맞아 동참을 거부했다가 '반혁명 장성 1호'로 서대문교도소에 100여일간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6년 귀국, 한국 외국어대 대학원장과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영국, 아일랜드, 로마교황청 대사 등을 지내며 외교관으로 활약했고,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의원에 당선돼 국회 올림픽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시 제21대 국무총리로 발탁돼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간 내각을 이끌었으며 재임 기간인 1990년 9월 분단 4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총리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남북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홍성철 통일원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평양을 직접 찾아 주석궁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정·관계를 떠난 후에는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아 대북 지원사업을 이끌었다. 북한 수재민 돕기(1955년)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1997년) 등 남북 교류에도 업적을 남겼다. 또 세종재단 이사장,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총재 등도 맡으며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다. 강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인공지능 전문가 불러 열공한 LG 최고경영진

김대식 교수 '딥러닝 기술' 강연
임원들 "사업 과감히 혁신해야"

LG그룹 최고경영진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날 그룹 최고경영진은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세미나에 뇌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와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대식 교수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향후 산업 변화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증기기관과 전기가 1차 기계혁명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다면 정보와 지능은 2차 기계혁명으로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게 됐다"며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판단할 수 있으며 음성·이미지 인식과 사진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최근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구글의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도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사진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인공지능 기술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최근 들어 딥러닝 기술을 다양한 사업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문 시스템인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 바람이 불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내놨다.

강연을 들은 LG그룹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력사업과 신성장 사업 등 전 분야에서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 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전했다.

LG 임원세미나는 구본무 그룹 회장과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자리로 분기에 한 번씩 열린다.

삼성그룹은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와 최승진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을 사장단협의회 강연자로 초청해 딥러닝 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식약처 신임차장 유무영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임 차장에 유무영〈사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송중기, 中'런닝맨' 출연료 전액 기부



송중기〈사진〉가 중국판 '런닝맨'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10일 송중기가 중국판 '런닝맨'인 저장위성TV '달려라 형제' 출연료를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송중기가 기부한 구체적인 액수와 기부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제3인류' 베르베르 내일 방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56·사진)가 12일 한국을 찾는다. 10일 출판사 열린책들에 따르면 베르베르는 '제3인류'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베르베르는 이번 방한 기간 프로야구 시구를 비롯해 대중강연, 팬 사인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발인이 11일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유해가 운구되고 있다. 지난 7일 향년 93세 일기로 별세한 구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동생이며 6선 국회의원, 럭키금성그룹 고문, LG그룹 창업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장지는 경기 광주공원묘원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LG家 마지막 1세대, 부인 곁으로

구태회 명예회장 발인

지난 7일 향년 93세 일기로 별세한 고(故) 구태회 명예회장이 11일 부인 고 최무 여사가 묻혀 있는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 안치 돼 영면에 들어갔다.

구 명예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으로 LG그룹 창업 1세대 6형제 중 넷째다. 고인은 LG그룹 창업 1세대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는데, 구 명예회장의 별세로 회(會)자 돌림인 범 LG가 1세대 6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장남인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현 LS니꼬동제련 회장)과 차남 구자엽 LS전선 회장, 사남 구자철 예스코 회장 등이 있다. 삼남인 구자명 전 LS니꼬동제련 회장은 2014년 유명을 달리했다.

구 명예회장은 1923년 6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구 명예회장은 LG화학의 모태였던 락희화학에 입사해 혁신 제품인'안 깨지는 크림 통 뚜껑' 개발을 주도하며 그룹의 틀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구 명예회장은 기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내리 6~10대 국회의원을 지내 6선의 정치경력을 쌓았다. 1976~1979년까지 제9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빈소가 차려진 첫 날(7일)부터 발인인 이날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장지는 2012년 운명을 달리한 부인 최무 여사가 묻혀 있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광주공원묘원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이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온라인 선거 플랫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네이버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센터장, 유권자의 날 국민포장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이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봉석 센터장이 지난달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며 수상 배경을 전했다.

네이버는 총선 기간 동안 투명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네이버는 공정성·정확성·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한 '네이버 4·13 총선 기사배열' 원칙을 공개하고 총선 기간 동안 외부 기사배열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총선 특집 페이지가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선거 당일에는 네이버 뉴스 모바일 페이지뷰(PV)가 3억8000만건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19대 총선 때 보다 538%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시니어 산촌학교, 인생 이모작 도울 것"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내달 15일부터 진행



최규복〈사진〉 유한킴벌리 사장이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부머(1955~63년 생)를 위한 시니어 산촌학교를 열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새로운 비전인 '숲과 사람의 공존'을 실천할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산촌학교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니어 산촌학교'는 귀·산촌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숲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 국립산림과학원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최규복 사장은 "시니어 산촌학교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꿈꾸는 숲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숲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 베이비부머가 더욱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니어 산촌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생태, 산림경영, 귀농 등 분야별 전문 교수진의 지도 속에, 산촌의 실제 생활과 귀·산촌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체험을 포함한 50시간 내외의 교육 일정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

오는 6월 15일부터 진행될 시니어 산촌학교 1기 교육생은 6월 3일까지 유한킴벌리 우푸푸 블로그와 생명의숲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이선애 기자 lsa@

인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상훈 △첨단자동차기술과장 정의경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오성익 △첨단항공과장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과장 장만희 △항공운항과장 강승호 △도시경제과장 김기대 △건축문화경관과장 최태용 △국제항공과장 김정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저작권정책관 박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위진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고욱성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단장 김병규 △감사실장 김홍석

◆**일동제약** △개발본부장 전무 최원 △IR담당 부장 박종수

◆**제이콘텐트리 M&B 〈승격〉** ◇**이사대우** △영상사업실장 겸 엘르편집담당 강주연 〈보임〉 △엘르편집장 최순영

◆**보험매일** △논설위원 조민성 △GA미디어국장 임근식 △경영관리부장 박영미

◆**남도미디어그룹** △회장 박성호 △남도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편집국장 오치남

부음

▲**한현각**(순천향대 나노화공과 교수)·**현영**(약사)씨 부친상, **지현근**(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박기홍**(캐나다 거주)씨 장인상 = 10일, 건국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2030-7901

▲**최대용**(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파트장)씨 부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19

▲**김기룡**(신아일보 대전·충남주재 부국장)·**기창**(전 한라그룹 이사)씨 모친상, **최평숙**(전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씨 장모상 = 10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42-220-9870

▲**전재덕**(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씨 별세, **전광일**(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씨 부친상 = 10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32-460-9407

▲**이형우**(퍼시픽아이엔 대표)·**방우**(건원건설 회장)씨 모친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010-2231

▲**최경옥**(성공회대 외래교수)·**정환**(한국아스트라제네카 부산지점 차장)씨 모친상, **김정하**(JTBC 정치2부 차장)씨 장모상 = 10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70-7606-4216

일과 생각

이 창 운 한국교통연구원장

교통사고 '메이데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며, 여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큰 불행을 당하는 일도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4년 5월에는 교통사고로 평균 매일 13명이 사망했고, 990명이 부상했다. 가장 즐거워야 할 가족여행이 교통사고로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4621명까지 낮아지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이다. 지금보다도 절반을 더 줄여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어쩌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응급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되고 구조대가 바로 도착해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일련의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망자 수를 줄이고 부상 후유증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2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40분 이내에는 외과적으로 유효한 처치를 받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 후 60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야간에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신고조차 못 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총 사망자 수의 32%에 이른다고 한다. 만약에 이런 교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최초 교통사고 발생 신고 단계가 중요한데, 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 이른바 '메이데이 eCall' 기술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에서 자동으로 사고 위치와 부상 상태를 응급대응센터에 전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 구호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야간 단독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위치 파악이 어려운 국도나 지방도 교통사고의 사상자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다. 이미 첨단 교통체계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통사고 응급대응 체계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나라의 차량 블랙박스 기술이나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모바일폰 등 ICT 기술을 응용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메이데이(mayday)'는 비행기나 선박이 사고 조난을 긴급히 알리는 용어이다. 프랑스어의 도움 요청(m'aider)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고 쉽게 영어 식으로 발음돼 약속된 세계 공통의 교통사고 조난 구조신호를 뜻하는 말이다.

가정의 달 5월에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대응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관계 당국과 민간부문의 깊은 관심과 재인식 촉구를 위한 '메이데이'를 요청하는 바이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식사비는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걸 두고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 원이면 저녁 때 소주에다 삼겹살은 가능하지만, 쇠고기나 장어 같은 음식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주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조사 비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부패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경제력에 비하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부패에 있어서도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패의 유형은 이른바 네포티즘이다. 네포티즘이란 가족주의 혹은 연고주의에서 파생되는 부패 유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그래서 가족주의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학연이나 혈연과 같은 집단주의적 부패 유형도 네포티즘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왜 부패가 뿌리 뽑히지 않는지를 대충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고주의에 입각한 부패는 그냥 둬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종의 문화와 관련돼 나타나는 부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경제 활성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선물의 상한선을 5만 원으로 규정할 때, 명절에 내수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웬만한 화환은 1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화훼업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 내수가 명절 때 오가는 고가의 선물로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해악적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 말이다.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없애는 데 이런 분위기가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핵심은 신뢰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건전한 경제의 근간 역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 양극화가 진행될 때 더욱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갖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이 있는 것도 희망의 크기를 더욱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들을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을 없애는 일일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식들의 취업 청탁이나 하고 있으면, 열심히 살려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여지없이 짓뭉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청산 여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처음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 참아내야 한다.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의 경제적 손해는 장기적 차원에서는 결국 사회적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자. 이런 사회적 합의만이 어려움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인물 5월 11일

리처드 파인만

양자전기역학을 완성한 현대물리학의 큰 별

20세기 물리학에서 두 거성(巨星)을 꼽으라면 단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리처드 파인만(1918.5.11~1988.2.15)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거시적 세계를 연구했다면 파인만은 미시적 세계를 다뤘다.

잘 알다시피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나뉜다.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묶여 있다.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성자가 위치해 묶여 있는 것이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파인만이다. '약한 핵력'도 파인만이 발견한 것이다. 원자핵이 방사성 붕괴를 할 때 알아낸 힘이다.

물리학의 기본적인 네 가지 상호작용(중력·전자기력·강한 핵력·약한 핵력)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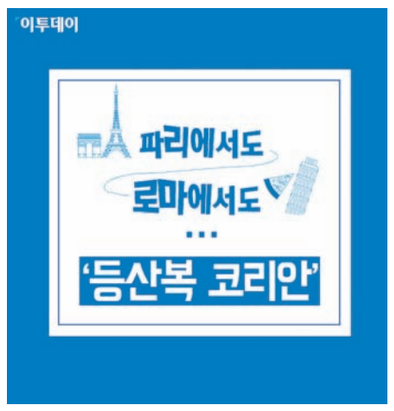
하지만 파인만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뭐니 해도 양자전기역학에서 이룬 성과일 것이다. 1965년 그는 양자전기역학 이론을 완성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양자전기역학을 양자역학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이다. 양자역학은 뉴턴 역학이 설명할 수 없는 원자 이하의 양자화된 세계를 다루기 위해 생겼다. 양자역학의 탄생으로 그때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화학적 현상과 물질의 성질이 대부분 풀린다. 예를 들면 산소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왜 물이 되는지 말해준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빛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였다.

양자전기역학이 생겨난 것이 이즘이다. 시공간 상에서 입자(전자 양성자 등)들과 광자의 상호작용을 역학적으로 계산해 양자역학을 보완한다. 파인만은 이 역학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빛의 현상 대부분을 규명했다. 인류는 비로소 중력 등을 제외하고 모든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

카드로 보는 세상



해외여행지에서 등산복 무리는 영락없는 한국인들이라죠? 한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등산복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못 입나?"고 하는 반면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죠. 아웃도어 등산복이 일상복·외출복이 된 건 업체의 몫도 큽니다. 친근한 톱스타를 내세운 광고에다 TV프로그램마다 PPL로 엄청 등장하니 말입니다. 해외여행 '등산복룩'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jol10q

온라인 와글와글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 98만 마리 "책임감 느끼고 키워주세요"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이 약 98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7만9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반려동물 등록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에 인한 질병 예방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2008년 시작, 2014년부터는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총 8만2100마리다. 이 중 개가 5만9600마리(7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양이가 2만1300마리(25.9%), 기타 동물이 1200마리(1.46%)였다.

네티즌들은 "주인들이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동물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 질병 예방주사 부담된다", "반려견은 장난감이 아니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윗스폿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크면 스윗스폿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짜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한다.

두배로 넓어진 스윗스팟(sweet spot)면적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짤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샤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쾌,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왼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훅이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큽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훅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아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꼬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저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설렘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카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데스크 칼럼

테슬라 쇼크…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한 지 운
뉴미디어부장

3월 31일 미국 전역의 테슬라 매장에는 수백미터의 줄이 늘어섰다. 이날은 테슬라의 중소형 전기자동차 '모델3' 사전예약 개시일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부터 줄을 서며 밤샘 고행을 불사했다.

'모델3'의 출시는 2017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1년 여를 넘게 기다려야 함에도 사람들은 대당 1000달러라는 계약금을 선뜻 지불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모델3'는 한국에서도 온라인 예약이 가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수백명가량이 한국에서 모델3를 사전 예약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산했다.

전 세계적인 화제 속에 '모델3'는 일주일 만에 약 32만대, 한 달 만에 약 40만대라는 엄청난 예약 실적을 올렸다. '모델3'의 가격은 3만5000달러. 이 물량이 모두 판매로 이어질 경우 테슬라는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4000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최근 테슬라에 쏟아지는 관심은 과거 애플과 비슷하다. 매장 앞에서 벌어진 사전예약 행렬도 과거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애플 마니아들이 매장 앞에서 밤새 기다린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패러다임을 바꾼 곳이다. 이 때문에 국내 휴대폰 산업은 한동안 타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현재는 물량에서 애플을 추월했지만, 순이익면에서는 지금도 애플이 단연 독주하고 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성공한 케이스다. 나머지 한국 기업들은 사라졌거나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은 물론 제품 디자인과 품질에서 완성도를 높이며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휴대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자동차는 휴대폰보다 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인 만큼, 시장 판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도요타의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등 산업 혁신의 중심에는 늘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또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내연기관'은 이제 모터와 배터리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이제 누구라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많은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말이다. 또 이는 스마트폰처럼 중국 기업이 변화의 틈을 비집고 자동차 산업의 주류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전자 제조산업의 중심지 아닌가.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 가치관은 상당 부분 바뀌어질 수 있다.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더이상 최고속도나 토크, 가속 성능, 연비 등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시장을 잡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특히 내연기관의 퇴출이라는 트렌드는 네트워크 인프라 적용을 가속화할 것이다. 마치 하나의 '바퀴 달린 컴퓨터'처럼 말이다.

진입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염두에 두고, 구글이나 애플은 자동차 산업의 간접적 진출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등을 선보이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이미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자율주행'이다. 테슬라 역시 자사 자동차의 차별점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속도나 안전, 경제성을 앞세우던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와 전혀 다른 행보다. 이 때문에 해외 유수 완성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업체와 손을 잡으며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나 BMW보다는 구글과 애플을 더 많이 듣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우 폭넓은 행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체 개발은 성공할 경우 득이 많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술 고립이라는 문제에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국내 업체들은 MS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오판을 한 데 이어, 자체 운영 체제로도 승부를 걸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변화는 변곡 임계점에 다르는 순간, 순식간에 일어난다. 준비하는 기업은 '혁신'을 했다고 평가될 것이며,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제2의 노키아'로 불릴 것이다.

goguma@

객석

강 민 표 제주도청 서울본부 대외협력관

전기차 타고 제주도 달려보세요



제주는 신이 내려 준 선물이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천혜의 자연인 보물섬이다.

제주는 이런 자연을 길이 간직하고자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2030년까지 차량 37만7000여대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른바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제주는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인구는 적지만, 전기차 보유 대수가 2368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유수의 렌터카 회사들은 전기차 렌털 사업을 진행한 지 이미 오래다. 이들이 운영하는 전기차의 가동률은 70~80%에 달한다. 가솔린이나 디젤 등 일반 렌터카 가동률이 50%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전기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오는 25~2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모터스 공동창업자 J B 스트라우벨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참석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미래 전략에 관해 특별대담을 나눈다.

전기차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제주를 방문해 포럼도 엿보고 전기차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만끽해보길 적극 권한다. 전기차는 우리 생활과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실감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 모든 도로를 전기차가 장악할 날이 머지않았다.

기자수첩

김 우 람 금융시장부/hura@

기업 구조조정, 반성이 시작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화두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정책금융은행의 안일한 태도는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취재 중 만난 금융권 각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세금을 써왔지만, 각종 비리와 부실기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변한 게 없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는 분명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2년간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홍기택 전 회장은 자리를 떠났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 담당 부총재로 취임했다. 책임은 둘째고 영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사상 최대의 사기기업 모뉴엘을 경쟁력 높은 중견기업으로 정했던 수출입은행의 수장들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두 은행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하며 양 기관을 합쳐 가장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복잡한 구조조정의 메커니즘을 몰라서일까.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미 진행돼 온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자 필벌이 우선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개미들도 중장기 투자 하고 싶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도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론 증권당국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이 단타에 치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장기 투자를 할 여건도 안 되고 투자할 종목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 1위라며 전문가들이 극찬하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양대 국적선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5개 종목 시가총액은 5년 4개월 동안 45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5년 전, 아니 2년 전에 우량주로 꼽히던 이들 종목을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했는지 전문가들한테 묻고 싶다.

이들 종목 외에도 포스코 등 우량주 가운데 장기 투자했다면 테마주 투자 이상으로 손실을 봤을 것이다. 개미들에게 훈계만을 늘어놓는 전문가들 가운데 조선 3사와 해운주, 철강주 등 우량주들이 골칫덩어리 주식들로 전락할 동안 경고를 하거나 정확한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것을 본 기억이 필자에게는 없다.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단기 투자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도 기업 실적을 높이고 배당을 늘리기보다 주가를 부양하는 데만 치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분석과 지적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배당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장사들이 배당이 낮은 것은 최대주주들의 지분이 낮기 때문이다.

지분이 낮은 최대주주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높이거나, 자신들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순이익을 가져간다. 지분 5%, 많아 봐야 10% 가진 최대주주가 개미들의 단타 때문에 배당을 늘리기보다 주가 부양에 치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미들이 단기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전문가다워야 하고 증권사들이 진정 고객 입장에서의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9년째 2000포인트 전후에 갇혀 있는 박스권을 뚫고 대세 상승해야 한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수익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을 보이자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었다.

데이트레이딩이라는 매매 기법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당연하다. 미국 다우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주식이든 펀드든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 누가 단기 투자하겠는가.

개미들도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온종일 뚫어져라 모니터만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주식거래 세금을 억대 연봉자 수준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skj78@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50	사회경제부	(02)799-2658
자본시장부	(02)799-2641	금융시장부	(02)799-2648	기획취재팀	(02)799-2651
뉴미디어부	(02)799-2664	문화팀	(02)799-6741	사진영상팀	(02)799-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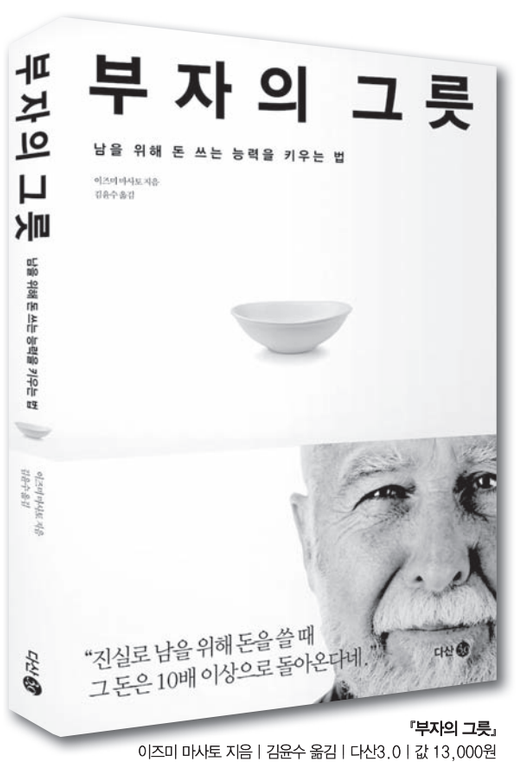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순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잔디로



편안한 신발 잔디로!

JANDIRO PAPASHU COMFORTABLE SHOES

잔디로 컴포트화 파파슈는 서울 YMCA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컴포트화 비교정보 조사
내마모성 및 논슬립 부문에서 1위 제품입니다.



JANDIRO PAPASHU

신발에 편안함을 담았습니다! 천연가죽 갑피, 천연가죽 항균 라텍스인솔, 논슬립 아웃솔 사용!
잔디로 컴포트화 파파슈 **CM.0513** (검정색, 밤색) / 할인가격: ₩120,000원

바이오실버 무취양말 증정: 냄새억제, 강력한제균, 흡한속건, 발목늘어짐 방지



서울역점: 02)6959-4900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직진 30M 편의점 2층) www.jandiro.com
강남점 02)562-0009 목동점 02)2608-7400 전주점 063)276-5000 광주점 062)351-9000 A/S센터 02)2690-9000

JANDIRO GOLF

배국남의 ★타 탐험 김민희





이 아가씨, 만만하게 보지 말 것

1999년 드라마 '학교2'로 스타덤
하지만 "연기력 부족" 잇단 낙인
5번 퇴짜 '굿바이 솔로' 결국 출연
데뷔 7년만에 첫 연기력 인정
'여배우들' '화차'… 스펙트럼 넓혀
영화 '아가씨'로 칸 레드카펫까지
박찬욱 감독 "상 받고도 남을 연기"

"처음으로 칸에 간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김민희(34)다. 그 옆에 있던 박찬욱 감독은 "김민희는 칸에서 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연기를 했다"는 찬사를 한다.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11~22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6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김민희가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떠올려본다.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가씨' 제작발표회장에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취재 열기의 원인은 한국 영화가 칸, 베를린, 베니스국제영화제 등 3대 국제영화제에서 4년 동안 무관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영화로 4년 만에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연기자로서 질적 진화와 변화를 드러내는 김민희가 '아가씨'에서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다.

"앞으로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영화라고 생각했다. 박찬욱 감독님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배우가 가진 개성을 펼치는 장을 열어주는 연출자"라는 '아가씨'를 출연한 이유를 밝히는 김민희의 언표는 그녀의 연기자적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최근 어떻게 여자 스타 중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배우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영국 소설가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1930년대 조선과 일본을 배경으로 상속녀 아가씨(김민희)와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 백작(하정우) 이야기로 재구성한 영화, '아가씨'에서 김민희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세상물정에 무지한 히데코 역을 맡았다. 박찬욱 감독은 히데코 역을 연기하는 김민희에 대해 "무엇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났다. 배역이 극단적 행동을 해도 그걸 잘 이해했다"며 김민희의 캐릭터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는 화가 윤희정 역을 통해 일상성과 비일상성을 오가는 기막힌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잡았다. 흥행과 작품성에서 모두 기대 이하였던 '우는 남자'에서조차도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남는 것은 김민희 연기력밖에 없다"는 관객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1999년 데뷔작인 '학교 2'에서 반항적 캐릭터로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드라마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2000) '줄리엣의 남자'(2000) '순수의 시대'(2002) '형수님은 열아홉'(2004)과 영화 '순애보'(2000) '서프라이즈'(2002)에서 기계 발음을 연상시키는 대사 연기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최악의 연기력을 보였다. 하지만 N세대 대표 스타 이미지로 수많은 광고에 출연하는 등 CF와 사적 영역에선 화려한 스타의 행보를 걸었던 이가 김민희였다. 그런 김민희에게 대중의 평가는 냉혹했다. 그녀에 대한 배우로서의 뿌리 깊은 편견과 저평가의 무서운 관성은 이때부터 생겨났다.

전문가나 관객, 시청자가 연기력 부족 스타를 거명할 때 조건반사적으로 꼽았던 김민희가 연기자로서 급변한 것은 바로 오디션에서 탈락하고도 노력과 의지로 출연하게 된 드라마 '굿바이 솔로'(2006)를 통해서였다. 제작진으로부터 5번의 퇴짜를 맞고도 "정말 배역이 마음에 들고 연기를 배우고 싶었다"고 말하는 김민희. 스타로서의 체취를 없애고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출연한 '굿바이 솔로'에서 고질적인 발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세밀한 대사 연기와 풍부한 표정 연기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전 작품에서 김민희와 캐릭터가 따로 놀아 몰입을 방해했던 것에서 벗어나 캐릭터 속으로 김민희가 완전히 들어가는 연기를 선보였다.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영화 '여배우들'(2009)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캐릭터에 잘 살려내고 '화차'(2012)에선 일상성과 자극적 강렬한 상황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연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연기의 진수를 드러냈다. 칸, 베를린 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는 박찬욱,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 출연해 감독과 관객에게 연기력에 대한 찬사를 끌어냈다.

연예계에는 준비 안 된 연기자가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의 성공으로 한순간에 스타로 부상한 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스타의 광휘에 취해 결국 대중의 외면을 받아 일회용 스타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김민희도 일회용 스타로 인식되며 대중의 외면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서 스타성을 배가시키는 작품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외연과 연기력을 확장할 작품을 선택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연기력으로 평가받는 김민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김민희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제 김민희는 저평가돼선 안 되는 배우다. 왜냐하면, 그녀는 작품마다 연기자로서 질적 변화와 진화를 꾀하고 연기력의 진정성과 캐릭터의 생명력으로 스크린과 TV 화면 너머의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아가씨' 칸의 여왕 될까





제69회 칸국제영화제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막이 올라 22일까지 화려한 영화 축제와 경연이 펼쳐진다.

개막작 우디 앨런 감독의 '카페 소사이어티' 상영을 시작으로 막을 여는 69회 칸 국제영화제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한국영화로는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경쟁부문에 초청된 21개 작품 중에는 쟁쟁한 거장들의 작품이 많아 사상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9회 칸 국제영화제의 공식 섹션은 경쟁부문,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Midnight Screening), 주목할 만한 시선, 특별 상영, 시네파운데이션, 단편경쟁 등 7개 부문 82편의 영화가 선보인다.

한국영화는 경쟁부문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비롯해 비경쟁 부문에 나홍진 감독의 '곡성',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시네파운데이션에 박영주 감독의 단편영화 '1킬로그램' 등이 초청됐다.

이번 칸 국제영화제는 거장 감독들의 작품이 대거 경쟁부문에 진출해 황금종려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의 수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경쟁부문에는 21편의 쟁쟁한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경쟁부문에 오른 주요 작품으로는 '천국보다 낯선' 등으로 독창적 영화 문법을 만들어 영화 지평을 확장해온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 1999년 '로제타', 2005년 '더 차일드'로 두 차례 황금종려상을 받은 다르덴 형제 감독의 '언 노운 걸', 80세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할리우드 스타이자 감독으로 활동하는 숀 펜의 '더 라스트 페이스' 등이다.

한편 69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영화감독인 조지 밀러 심사위원장과 함께 배우 커스틴 던스트, 바네사 파라디, 매즈 미켈슨, 도널드 서덜런드, 배우 겸 감독 발레리아 골리노 등이 선정됐다.



'태후' 세트장 다시 짓는다고?

태백시, 드라마 인기에 20억 들여 복원
문화부도 손사래… '태사기' 전철 밟나

한류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배용준 주연 사극 '태왕사신기'의 제주 세트장은 오랜 기간 쓰레기장처럼 방치되다 결국 철거됐다. 신드롬을 일으키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의 드라마 '올인' 세트장은 제대로 관리와 운영을 하지 못해 지난 1월 경매에 나왔다. 경북 포항시가 15억 원을 들여 지은 드라마 '불꽃 속으로' 세트장은 찾는 손님이 없어 건립 3년 만에 철거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기 드라마의 세트장을 관광지화해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수많은 지자체 결과물들이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면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트장의 사후관리나 관광객의 유입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없이 '드라마가 인기 있으면 장사가 되고 관광객이 몰려들겠지'라는 안일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태가 수십억 원을 들인 드라마 세트장을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든 뒤 결국 철거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반복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가 4월 14일 막을 내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다시 짓기로 한 것은 문화의 속성과 관광산업의 기본마저 모르는 실패가 뻔한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업이다.

태백시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폐탄광인 한보탄광 터에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재건하기로 KBS와 합의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태백시가 우르크 태백부대와 지진 현장 등 주요 세트장은 지난해 11월 드라마 촬영이 끝난 뒤 철거된 것을 20억 원을 들여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태백시는 문화부에 '태양의 후예' 세트장 재건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세트장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다. 문화부의 제대로 된 판단이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무조건 세트장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대중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세트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세트장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계속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연계해 세트장과 관광시설의 유기적 결합, 접근성 제고 등 입체적인 관광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세트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유치 등도 더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 세트장 관광 사업은 100% 실패다.

지자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겨울연가'의 남이섬을 사례로 들어 드라마 세트장을 앞다퉈 건설했지만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나 엄청난 혈세만을 낭비했다. 남이섬의 경우 드라마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와 시설 강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철저한 관리,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등이 뒤따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태백시의 '태양의 후예' 세트장 재건립은 단순히 드라마 인기에 편승한 한탕주의적 전시행정의 극치다.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태백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제일기획은 자녀들을 회사로 초대해 부모가 일하는 일터를 소개하고 견학하는 '주니어 제일러스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그룹

SAMSUNG 삼성그룹

"워킹맘 불편함 없도록" '여성경영'도 초일류로

"10년 후를 보고 사내 어린이집 확대를 검토하라. 그래야 임직원 사기가 올라간다."

2011년 4월 21일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우수한 여성 인재가 고민하다 그만두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이 회장의 의지로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는 워킹맘(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은 국내 임직원 중 여성의 비중이 45%에 이르고 있다. 육아나 자녀 교육에 관심도가 높을 수 있는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를 넘는다. 이에 제일기획은 지난 2008년 직장어린이집 '아이제일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초청행사인 '주니어 제일러스 데이' 행사도 워킹맘에게 인기가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전체 직원에 약 4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여성 직원들은 사내에 '여울회'라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 직원들의 VOC(Voice Of Customer)를 수시로 청취하고 이를 회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계열사에서도 출산 전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직원을 적극 배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임산부 배려 문화를 바탕으로 모성보호 전담창구 운영, PC 자동종료 시스템, 탄력근무제뿐만 아니라 난임휴직, 출산경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삼성증권은 2008년 이후 출생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주 20시간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슬로바키아 신생아가 타는 첫 車, 베이비카트 '현대 ix1'

HYUNDAI 현대자동차그룹

'신생아가 타는 첫 차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유럽 슬로바키아 신생아를 위해 '베이비 카트'를 제작, 기증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산부인과 병원들은 비싼 가격과 의료 지원 부족으로 베이비 카트를 마련하지 못한 채 마트의 쇼핑 카트에서 신생아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베이비카트 '현대 ix1'을 직접 제작, 기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마련했다.

현대차 슬로바키아 법인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현대 ix1'이라는 이름의 베이비 카트를 제작해 슬로바키아 내 7개 병원에 기증하고 있다.

현대차 슬로바키아 법인은 2013년 하반기 기증 계획을 세우고 반 년간 제작 과정을 거쳤다. ix1은 신생아들을 안심하고 눕힐 수 있도록 의료기기 인증 업체가 생산과 공급을 맡아 의료적, 법률적 규정에 맞게 제작됐다. ix1은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소재를 활용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가볍고 넓은 몸체로 엄마 뱃속의 편안한 느낌을 재현해 냈다. 또한 4개의 바퀴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높이와 기울기 조절도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현대차는 ix1을 기증하기 위해 단순한 베이비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애 첫 차를 선물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베이비 카트 이름인 ix1이 현대차의 차량 이름과 유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ix25, ix35(국내명 투싼) 등은 현대차의 대표 SUV(다목적스포츠차량)로 유명하다. ix1에 새겨진 현대차 고유의 기울어진 H자 엠블럼도 특징이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슬로바키아 내 산부인과에 2014년 5월부터 기증해온 '베이비 카트' 현대 ix1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안철우 기자 acw@

LG

유연근무·정시퇴근제 도입…사내 보육시설 28곳 운영



LG생활건강은 본인이 유연하게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플렉서블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생활건강

LG는 여성 직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 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두 가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를 총 5가지 출·퇴근 시간대로 확대했다. 기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인 '9시 출근 6시 퇴근' 인력이 90%였고 '8시 출근 5시 퇴근' 인력이 10%에 머물렀다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다른 시간에 출근해 일찍 퇴근하는 인원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LG생활건강은 또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외부 회의시간을 계획할 경우 출근 또는 퇴근시간과 연계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LG는 여성 인력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친환경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가 1996년 용산 사옥 인근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계열사별 전국 사업장 28곳의 어린이집에서 1300여명의 어린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 지원 가능하되 한부모, 사내부부, 맞벌이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LG광화문빌딩에 28번째 사내 어린이집이 개원했다. LG광화문빌딩 어린이집은 303㎡(92평) 규모로 LG생활건강, 서브원 등 입주 계열사 직원 대상 모집을 거쳐 만 1세에서 4세까지 40여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SK 하이닉스

국내 최초 '24시간 어린이집'…기혼사원엔 임대아파트

SK하이닉스는 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지원, 사원 임대 아파트, 주택자금 대출 등 직원들을 배려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2~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이다. 특히 이천에서는 SK하이닉스 등 지역 내 교대근무자를 위해 경기도에서 만든, 국내 최초 24시간 어린이집 '아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개원한 아미어린이집은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부지에 국도비 9억61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어린이집으로, 전국 최초의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또 직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진학을 축하하는 입학축하금을 제공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 학자금을 지원한다.

기혼 사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천에는 17평과 21평 총 420가구, 청주에는 18평과 24평, 28평 총 99가구가 운영 중이다. 무주택 기혼 사원은 누구나 신청 순서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무료다.

더불어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사원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회사가 지원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정문에는 '행복문(Happy gate)'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김지영 기자 gutjy@



전 계열사에 정년연장 해법 '임금피크제' 도입

LS

LS그룹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올해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직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이 2007년부터 협력적 노경관계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40여개 전 계열사에서 이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LS전선은 2007년 전선 업계 처음으로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근속년수가 22년으로 고령 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가 상호양보와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들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 시행해 왔다.

또한 LS그룹은 지난해 3월 맞벌이부부, 워킹맘 등 임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안양 LS타워 인근에 'LS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LS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된다. 각 반과 생활 시설에 CCTV 15대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부모와 교사 간 의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안양에 준공한 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가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 사진제공 LS그룹

데 역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등 그룹 내 주요 6개사는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되기도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고 금융기관의 투·융자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육아휴직 2년… 직장 어린이집 2900명 수용

SAMSUNG 삼성전자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임직원 중 여성 임직원의 비중은 국내 26%, 해외 54% 수준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여성 직원들이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난임 휴직제 운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 증축, 모성보호실 확대 등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삼성전자에 도입된 난임휴직제는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휴직제도이다. 일부 공공기관 등에 도입돼 있지만 직원 수 2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가 이를 전격 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녀를 둔 '워킹맘'뿐 아니라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 직원들의 편의 제고도 고려한 조치였다.

지난해에는 기존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늘렸다"며 "일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고급 인력들이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총 1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해 여성 직원이 출산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도 눈에 띈다. 모성보호 등록을 비롯해 모성보호 책자와 표식지급, 임부 차량 사내주차 가능, 간식 제공, 태교 CD대여, 태교·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출산선물 제공 등 임산부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산 이후에도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2년 10개의 어린이집 수를 올해 13개까지 늘렸고 어린이집 정원도 5년 전 1434명에서 2905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는 임산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육아를 위한 모유유축실도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 최초로 생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모유유축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삼성전자만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다. 양창균 기자 yangck@

미취학 자녀 워킹맘에 주 15~30시간 단축근무

LG전자

LG전자는 임신기간 무급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사산 휴가 부여 등 여성 직장인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실질적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으로 인한 여사원의 근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90일) 이전의 임신기간 중 희망 여사원에 한해 최장 6개월 간의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여직원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주 15~3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더불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직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한 여직원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등록을 하면 부서장의 업무상 배려 속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임신 주기에 따라 유급으로 정기검진시간을 제공하고 임신 또는 분만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출산 여성 연구원의 편의를 위해 2005년 MC연구소를 시작으로 본사 및 각 연구소, 주



2014년 서울 종로 LG광화문빌딩에 문을 연 사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한 교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요 사업장에 착유 시설을 갖춘 모성보호실(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LG트윈타워에는 2011년 리모델링을 통해 모성보호실(유축실)의 규모를 넓혀 육아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3층에 개원한 'LG사랑어린이집'은 575㎡ 규모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상사 등 5개 계열사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재 80여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LG사랑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김지영 기자 gut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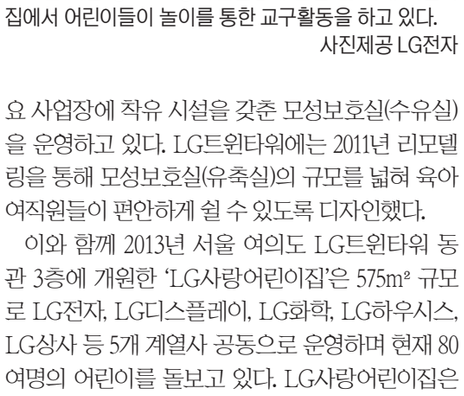
자녀에서 부모님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인간존중이 경영'이라는 LG웨이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년 1월 즐거운 직장이란 LG디스플레이만의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전담 부서인 '즐거운직장팀'을 구성했다. 현재 전사뿐 아니라 파주와 구미, 서울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념 아래 만들어진 '가화만사성'은 직원뿐 아니라 자녀, 부모, 배우자 등 임직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LG디스플레이의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이다. 사업장별로 임직원 부모님들에게는 효도관광을, 중고생 자녀들에게는 대학탐방과 입시특강을 진행하고, 초등학생 또는 유아 자녀들을 위한 임직원 교육 특강 프로그램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운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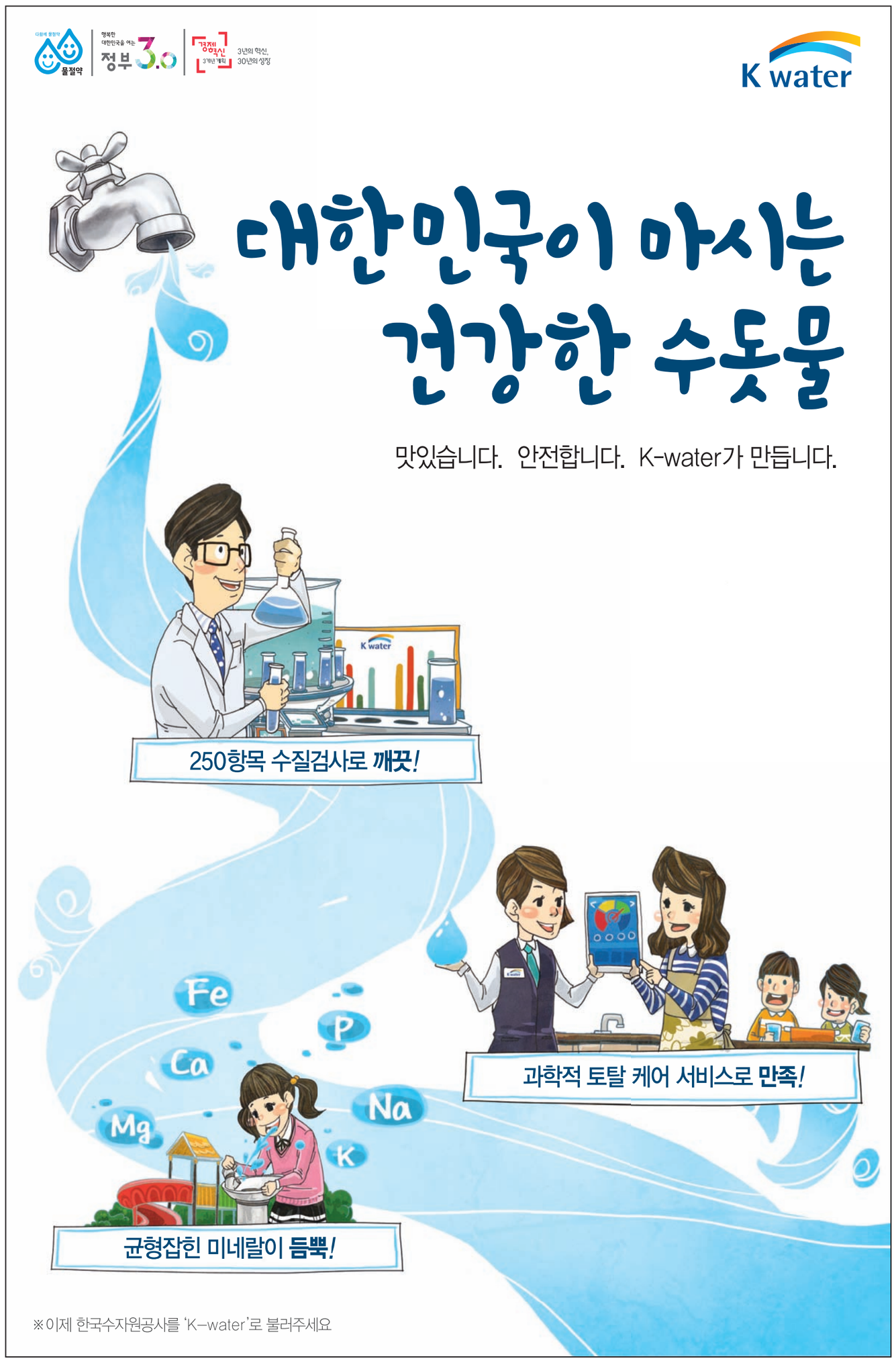
'미혼·결혼 주기'의 직원들에게는 싱글 매칭 이벤트,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기'의 직원들에게는 사내커플 웨딩카 지원, 행복한 2세 만들기, 태교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방문한 임직원 가족의 자녀들이 미니 화분을 만들어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워킹맘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아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직원들의 첫 아이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당해년도)를 대상으로 아기 용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 요가교실 및 임산부 특강 등(태교/불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육아기'에는 5월 가정의 달 행사, 엄마·아빠 회사 탐방, 행복한 가정학교 등을 진행중이며 '초·중·고 자녀교육기' '자녀독립·은퇴준비기' 등 주기별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동부하이텍 여성 근로자들이 문화적 소양증진을 위한 문화 강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동부하이텍

동부

태아검진휴가 등 보장 여성행복 일터 만들기

동부그룹의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인 동부하이텍은 여성 근로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1일 동부하이텍에 따르면 여성 인력은 4월 말 기준 988명으로 전체 근로자 2095명의 47%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산직에 속하는 인원으로, 이는 고도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요구하는 반도체 기업의 특성상 생산라인에 보통 여성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하이텍은 여성 인력에 대한 고용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태아검진휴가 보장, 여성전용 주차장 운영, 엄마의 방(수유실) 및 여성 전용 휴게실 운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부천 및 상우 공장에 사내 보육시설인 '햇살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은 여성 근로자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력단절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다.

또한 동부하이텍은 여성 근로자들이 문화적 소양증진을 통해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디퓨저 만들기, 도자기공예, 요가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정서적 안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업무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대표적이다. 분기 1회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다자녀 우대 특약(가칭)'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독거노인 건보료 대신 내주고 급여 끝전 모아 쌀 나눔

HYUNDAI STEEL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봉사단인 '디딤쇠 봉사단'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인층을 상대로 명절 선물세트 전달, 건강보험료 대납, 김장나누기, 사랑의 쌀 전달 등 굵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디딤쇠 봉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공헌이다. 디딤쇠 봉사단은 연말 김장을 직접 담가 노인분들과 무료급식소 등에 김장을 나눠 주는 러브 플러스(LOVE PLUS) 김장나누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끝전모으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진행, 저소득 노인층을 지원하고 있다. '끝전모으기'란 월급에서 1000원과 1000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적립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2000만원을 웃돈다.

직원들의 이 같은 이웃사랑 실천에 회사도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만큼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도입해 매년 성금 규모가 5000만원에 이른다. 인천공장은 이 모금액으로 쌀을 구입해 지역의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어린이공부방 등에 전달하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하기'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행사는 무너져가는 실버극장인 인천 동구 미림극장에서 행사를 진행, 주위의 관심을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현대제철 '디딤쇠 봉사단'이 인천 미림극장에 어르신을 초청, 영화를 관람했다. 사진제공 현대제철

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현대제철은 차례상과 생필품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를 제작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세상을 따뜻하게' 모토 사업장별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DK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지난 1월, 송원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33명을 장학금 1억82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미션 아래 기업 발전의 근간이 된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나눔과 봉사를 확산시키고자 각 사업장을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봉사단을 이끌어 오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 봉사단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나눔지기 봉사단'이 그 중심에서 활약하며, 본사 포항 인천 당진 부산 등 5개 사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해 본사의 겨울철 김장봉사, 인천제강소의 연탄나르기, 포항제강소의 석병양로원 봉사활동, 당진공장의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별 대표 나눔지기 봉사활동이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2대 장상태 회장이 1996년 1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송원문화재단을 통해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세주 회장은 송원문화재단에 매년 재단 출연금을 늘려, 현재 자산이 약 426억원에 이를 정도로 키웠다. 사회공헌 활동 대상을 전국의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사업과 독거노인돕기 사업 등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원문화재단의 대표적 사회공헌은 장학사업으로, 동국제강은 이공계 대학생 장학 사업을 13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동국제강의 이공계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년간 연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동국제강 입사 희망 시 우대 혜택을 받아, 철강 전문가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트럭에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차려 어린이 과학교육

BMW코리아

BMW코리아의 사회공헌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를 위해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BMW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앞세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행사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재단의 가장 대표적 목적사업인 '주니어 캠퍼스'는 기존 11.5톤 트럭의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포함해 2015년까지 총 3만9114명의 어린이들에게 과학 창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 BMW코리아 및 딜러사의 기술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에게 나누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인 멘토가 1년간 월 1회 전공 분야 및 진로에 대한 정기적 멘토링을 제공한다.

지난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넥스트 그린'을 시작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넥스트 그린 프로그램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적, 자연과학적,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아우른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를 수료했다. 또 매년 자동차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해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2014년 드라이빙 센터에 '주니어 캠퍼스'를 신설해 어린이들에게 과학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BMW코리아

김희진 기자 heejin@



일·가정 양립 '홈퍼니 경영'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SK(주) C&C의 최혜란 과장(34)은 오전 9시가 되면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 최씨는 30분 이상 아이와 함께 머물다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린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덕분이다.

SK(주) C&C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홈퍼니(Home + Company)'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워킹맘을 위해 2005년 IT서비스 업계 최초로 사내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초기 정원 49명이던 어린이집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법규제 해소를 요청한 덕분에 정원 76명으로 확대됐다.

또 SK(주) C&C는 출산휴가가 끝난 뒤 별도의 신청 없이도 1년간 육아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기혼 여성의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휴직제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허용제도', 가족 간호를 위한 '가족 돌봄 장기 휴직제도' 등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정 육아휴직 대상은 만 6세 기준보다 높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SK(주) C&C '늘 푸른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SK(주) C&C

유연근무제 덕분에 출퇴근 시간, 출근 일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해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워킹맘도 적지 않다. 아울러 SK(주) C&C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오후 6시가 되면 방송과 함께 전 직원 퇴근을 독려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2주 이상 장기 휴가가 가능한 '빅 브레이크' 등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SK(주) C&C는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3년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출퇴근 시간 선택근무… 남성 육아휴직 장려

KT는 여성인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부터 이미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그 결과 여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6년)나 남성 직원들의 근속연수(18년)가 비슷하다.

KT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생애주기별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휴가, 단축 근무, 지원금을 시기별로 지원한다. 출산 지원금은 첫째, 둘째 아이의 경우 100만원, 셋째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부여하는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유급) 일수는 70일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60일보다 10일 더 많다. KT는 사내 여성 직원들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담 없이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70일간의 휴가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에 복귀한 비율도 100%를 기록했다.

출산전후휴가를 끝낸 뒤 만 6세 이하 유아가 있는 여성 직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KT는 법적 기한 1년보다 1년이 더 많은 2년을 보장한다. KT는 2011년 이동통신 업계 최초로 2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다.

육아휴직 기간 인사고과는 평균점 이상(상위 40% 수준)을 배점,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재배치되도록 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복직률(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은 99%에 달한다.


황창규 KT 회장이 직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KT

3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오전 10시~오후 3시, 오전 11시~오후 4시 중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외에도 리프레시 휴직, 가족돌봄 휴직, 안식년 휴가제(장기근속자 대상) 등을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본인에 맞게 조정하는 코어타임 근무제도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장소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스마트워킹센터를 선택해 일하거나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도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출산·육아·건강·상담까지… 'U+즐거운 직장'

LG유플러스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출근하고 싶은 회사 'U+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용산 신사옥에 'U+어린이집'을 개설했다.

만 1세부터 5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사내 부부, 맞벌이 순으로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다.

U+어린이집에서는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의 기본 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워킹맘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실 '마음의 숲'을 운영하고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첫째, 둘째, 셋째 등 자녀 출산 시마다 선물을 제공하며 회사 차원에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임직원의 심신 건강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돌보아 창의력 증진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명상 프로그램 '마인드 스트레칭'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본사 지하 2층에 명상실 '비움'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용산 신사옥에 'U+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마인드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명상 전문 강사를 통해 새벽반(아침 7시50분~8시40분), 점심반(낮 12시~12시50분)으로 운영한다. 일주일에 2번 4주에 걸쳐 총 8번 진행된다.

LG유플러스 즐거운 직장팀 관계자는 "구글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그대로 재현했다"며 "직원들이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임신기 단축근무… 양로원 물품후원 봉사활동

KIT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우선 4월 5일부터 무역협회는 임신 여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직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산부들은 실제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서 일주일 최대 1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선진화된 일자리 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협회에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총 2명의 직원이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1월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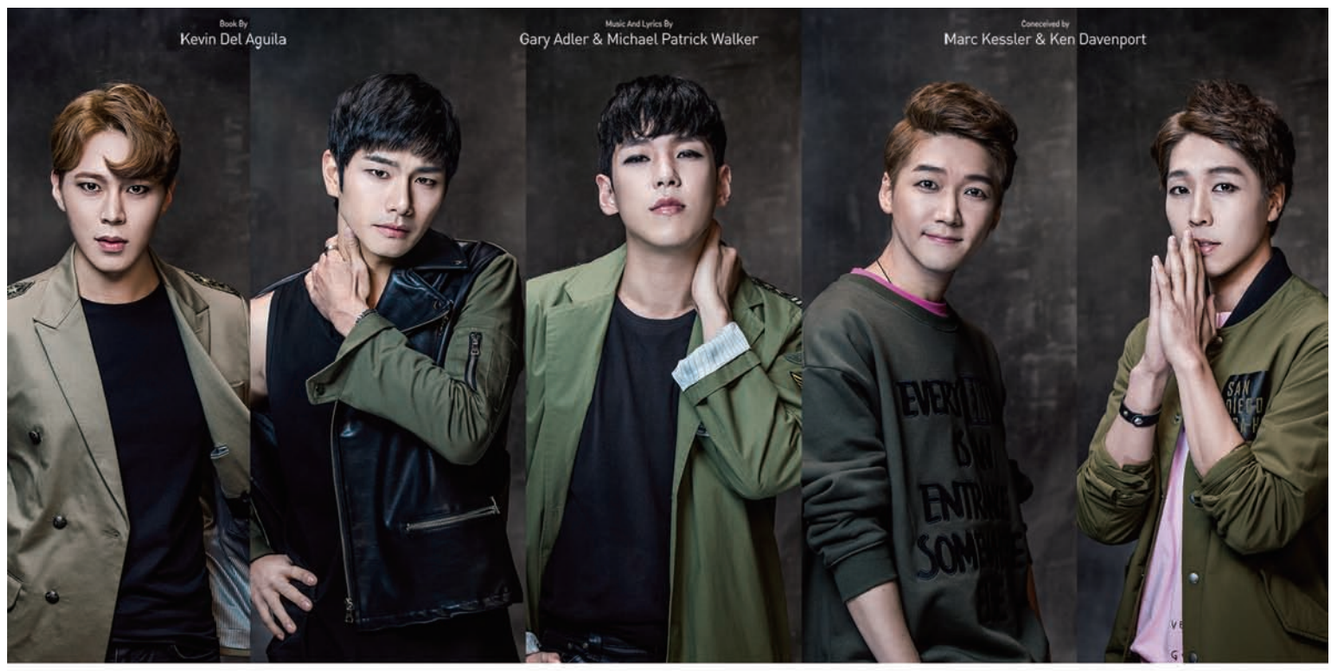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임직원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무역협회

무역협회는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명절에 양로원 등에서 고령화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양로원에 이불과 담요, 쌀 등 후원품을 전달하는가 하면 성금을 모아 기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도 활발하다. 아주대학교 'After You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경기도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이공계, 상업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무역캠프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대신자산운용 '인덱스펀드' 운용보수 0.05%P 낮춘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운용이 인덱스펀드의 운용 보수를 인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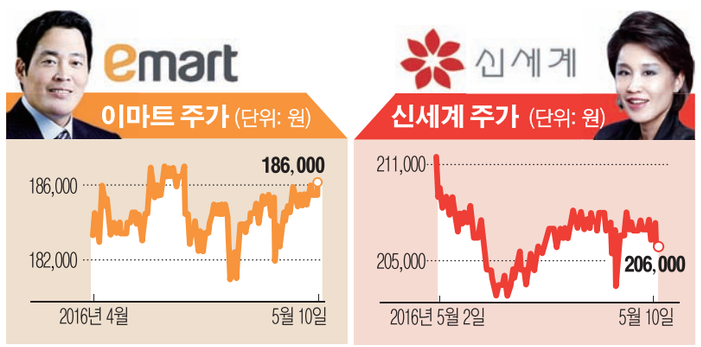
10일 대신자산운용은 코스피(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고 차익거래, 공모주 투자 등 알파 운용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 '대신 KOSPI200인덱스펀드'의 운용보수를 연 0.2%에서 연 0.15%로 낮춘다고 밝혔다.

2002년 1월에 설정된 대신 KOSPI200인덱스펀드는 현재까지 229.7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인 160.19%에 비해 69.53%포인트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

대신자산운용 박재영 본부장은 "인덱스 펀드는 성과 차이가 크지 않아 장기투자 측면에서는 저렴한 보수가 유리하다"며 "이번 상품은 안정적인 성과에 저렴한 보수까지 더한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 KOSPI200인덱스펀드는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 우리은행, 삼성생명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정용진의 이마트…정유경의 백화점

신세계 분리경영 오빠가 출발좋네

라이벌 주가

지난달 주식교환 마무리
각자 지분 9.83%만 보유

김포 물류센터 안정화
이마트 주가 3.1% 상승

면세점 경쟁 심화전망에
신세계는 2.7% 떨어져

정용진·정유경 남매 간의 분리경영이 시작된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9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주식 교환을 통해 사실상 이마트 부문과 신세계 부문으로 분리경영을 시작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신세계 72만203주(7.32%)와 이마트 203만9196주(7.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신세계 지분 없이 이마트 보유주식이 274만399주(9.83%)로 늘어났다. 반대로 신세계 주식 24만7650주(2.51%), 이마트 주식 70만1203주(2.51%)을 갖고 있던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96만7853주(9.83%)만 갖게 됐다.

정리하자면 이마트는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백화점은 정 총괄사장에게 몰아줘 남매간 계열분리를 한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회사에서 보유하게 된 지분도 똑같이 9.83%씩이다.

지분교환이 이뤄진 4월 29~5월 10일 두 회사 주가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주말과 연휴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갓 시작된 분리경영의 성적표로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시장이 두 회사에 갖게 될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진 부회장이 가져간 이마트의 주가 흐름은 이 기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분교환이 이뤄진 시점에 18만350원이었던 이마트의 주가는 10일 18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1% 상승했다. 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음에도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마트의 상승은 핵심사업의 개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근종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마트몰 실적은 김포 물류센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내년 이후부터 의미 있는 개선세가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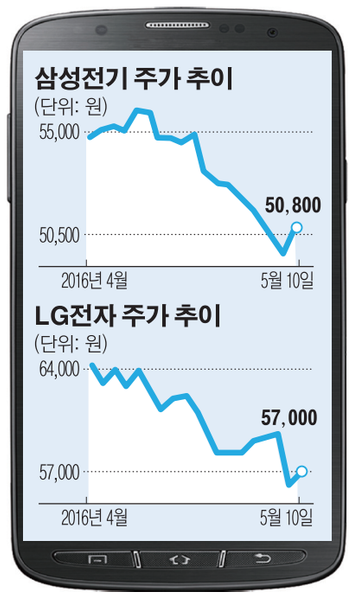
한편 정 총괄사장이 가져가게 된 신세계의 주가흐름은 같은 기간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29일 21만1500원이었던 신세계 주가는 10일 20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이 기간 2.7% 하락했다. 주가하락은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방안 발표로 면세점 사업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신세계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포화상태 진입한 스마트폰…관련株도 울상

올 1분기 글로벌 판매 첫 감소
中·인도 중심 신흥시장 부진

삼성전기·LG전자, 10% 안팎 뚝
부품株 KH바텍·아모텍도 약세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휴대전화 관련 업체의 주가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IT 수요 위축과 맞물려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주가는 최근 1달 새 11%, LG전자의 주가는 9% 하락했다. 휴대전화 부품업체 KH바텍과 아모텍의 주가 역시 각각 16%, 12% 내리는 등 휴대전화 관련주의 주가가 전반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3억3000만대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전분기 대비 25% 줄어들어 부진을 주도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15% 하락했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판매 부진은 애플의 아이폰 6S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약진에도 아이폰 판매 부진과 중국 선도업체들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위축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스마트폰 수요마저 역성장을 나타낸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IT 수요 부진이 심화하는 국면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부진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휴대폰 교체주기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혁신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길어지고 있다. 글로벌 중고폰 시장도 점점 커지는 점과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점도 스마트폰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관련주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전장과 관련된 아이템을 확보한 IT·부품 업체인 LG전자, 파트론, 세코닉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네이버, 신고가 '라인' 탔다

1분기 깜짝실적…주가 3개월새 27%↑
모바일광고 성장 주효… 엔고도 한몫
최근 열흘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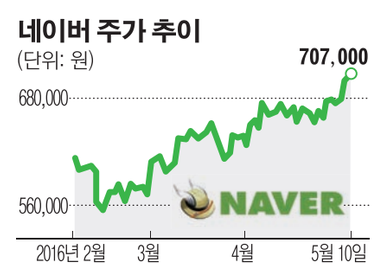
네이버(NAVER)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의 주가 질주가 매섭다. 지난 2월 12일 55만6000원이던 주가는 이날 70만7000원을 기록하며 3개월 새 27.16% 급등했다. 전날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당 70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날 역시 71만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시가총액 역시 크게 올랐다. 올 초 20조8324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11위 규모로 시작한 네이버는 이날 23조2386억원으로 7위로 뛰어올랐다.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28일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 9373억원과 영업이익 2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6%, 33.8% 증가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실적 발표 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됐다. 외국인은 네이버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간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13조8038억원으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 1위를 기록했다.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네이버쇼핑과 모바일 검색 증가에 따른 모바일 광고 성장이 꼽힌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모바일 광고는 1분기 검색광고 중 45%, 디스플레이 광고 중 34% 성장하며 네이버의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엔화 강세에 따른 자회사 라인의 실적 개선도 힘을 보탰다. 엔화는 올 들어 약 8% 가치가 상승했고, 그 몫은 고스란히 라인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라인은 전분기 대비 5.2% 증가한 341억엔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중 광고 부문은11.6% 증가한 119억엔의 매출을 올렸다. 실제 네이버의 재무제표상 해외사업환산손익 계정이 포함된 영업외수익은 지난 4분기 4억4100만원의 손실에서 올 1분기 20억8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앞날이 무조건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네이버의 실적은 라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해외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인의 매출비중은 전체의 36%에 육박한다. 엔고 현상이 지속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라인이 올해 혹은 내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실적의 한축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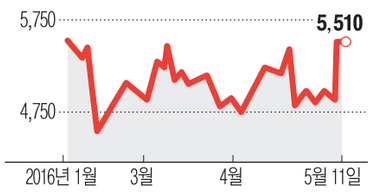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일감 떨어진 KC코트렐, 119억 유증으로 돌파구



KC코트렐 주가 추이
(단위: 원)



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에 급감…2년 연속 적자수렁에
"수주증대 통한 매출회복이 우선… 흥행여부 미지수"

환경플랜트 업체인 KC코트렐이 수주잔고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코트렐은 11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970원이다. 구주주 청약예정일은 6월16~17일이며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는 6월22일부터 23일 양일간 진행된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32억원을 타법인 지분 취득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87억원은 시설운영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KC코트렐의 주력사업은 대기오염방지 환경플랜트 사업이다. 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국내 산업단지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APCE: Air Pollution Control Equipment)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방산업 위축으로 KC코트렐의 수주잔고도 급감하는 추세다. KC코트렐의 원화환산 수주계약잔액은 2012년에 386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말 원화환산 수주 계약잔액은 2344억원이다. 특히 2013년 이후 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발전자회사(한국중부발전 등)에서 발주가 줄어들며 KC코트렐의 국내 수주잔고는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또한 부채감축에 힘쓰며 신규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STX중공업, 한라산업개발과 같은 경쟁사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저가 경쟁입찰이 심화하면서 수주잔고가 감소한 측면도 있다.

이에 2014년 말 KC코트렐의 수주 계약잔액은 253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6% 감소했다. 특히 2014년 국내 수주계약잔고는 126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7.1% 감소해 2015년 말에도 1225억원으로 2013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방 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KC코트렐의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868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0% 하락했다. 또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37.3% 늘어난 87억원을 기록했다. 연결기준으로 2014년에 당기순손실 7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으며, 2015년에도 당기순손실 68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측은 "매출액 및 손익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경기 둔화로 인한 시장 축소와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말미암은 낙찰가격 인하"라고 판단했다.

특히 "기타비용 등의 증가로 인한 적자가 아닌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라고 판단된다"고 "향후 수익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주 증대를 통한 매출액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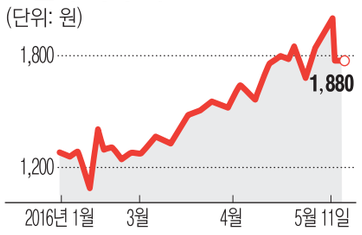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플랜트 등 전방산업 침체로 관련 산업 자체가 심한 정체기를 겪고 있어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흥행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시종 기자 ssj@

코센, 이티에이치 50억 투자 전기車 시장진출 '쾌속질주'

유증방식 지분 55.43% 매입
"2차전지 산업 성장 가능성"

코센 주가 추이
(단위: 원)



코센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이티에이치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센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티에이치 주식 100만주(지분 55.43%)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금액은 5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0.39%에 해당한다.

이티에이치는 지난 2003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전기 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장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및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티에이치는 지난해 매출이 127억원을 기록해 전년(66억원)대비 90% 이상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전기차 시장 본격 개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인수는 2차전지가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이번 인수를 진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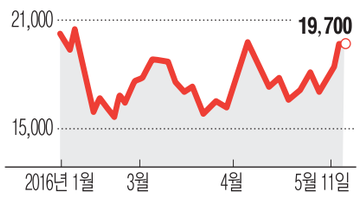
코센 관계자는 "이티에이치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2차전지 검사장비 산업은 아직 신생 산업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파티닙, 위암치료 효과적" 에이치엘비 국제학술지 실려

네이처 리뷰서 긍정적 평가
향후 라이선스 협상서 기대

에이치엘비 주가 추이
(단위: 원)



에이치엘비의 아파티닙(Apatinib)이 학술지 네이처 리뷰(Nature Review)에 소개됐다. 회사 측은 라이선스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엘비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네이처 리뷰에 아파티닙에 대한 리뷰가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티닙 - 난치성 위암치료를 위한 3차 치료요법'이라는 리뷰에 따르면 아파티닙이 중국 외 미국·유럽 등에서 서양인에 대한 임상결과가 좋을 경우 위암 3차 치료에 관한 전 세계의 표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긍정적인 평가는 라이선스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최근 중국 판권을 가진 헹루이사를 분석한 도이치뱅크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시판 2년차인 올해 아파티닙의 중국내 매출은 첫해 매출의 3배에 이르는 약 14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에서 위암 2차 치료제 임상과 폐암, 간암 임상 3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철 LSKB 대표는 "3차 치료제로서의 매출이라 향후 폐암, 간암, 위암 2차 치료제로 추가 적응증이 확보되게 되면 매출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공시돋보기

710억 실탄 쌓은 한솔케미칼, 테이팩스 '정조준'

자회사 HT투자사 71만주 발행
"공업용 테이프 생산 기업으로 기존 전자소재사업과 시너지"

한솔케미칼이 대만 공업용 테이프 생산업체인 테이팩스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케미칼 자회사인 HT투자목적회사(SPC)는 신주 71만주를 발행하는 7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솔케미칼은 HT투자목적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5만5000주(지분율 50%)를 355억원 규모에 현금 취득했다. 이와 함께 엔에이치 아주아이비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회사도 HT투자목적회사 주식 35만5000주(지분율 50%)를 355억원 규모에 동일하게 취득했다.

이번 출자의 목적은 테이팩스 주식 취득을 위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달 27일 한솔케미칼은 엔에이치 아주아이비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회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 SPC를 설립하고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이전해 테이팩스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3월 한솔케미칼은 테이팩스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테이팩스 발행주식 427만4000주 중 티피엑스제일호 유한회사와 티피엑스제이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230만6505주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칼라일(Carlyle Growth Korea)이 보유한 테이팩스 잔여주식 193만2495주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솔케미칼은 이들 2건의 MOU를 통해 테이팩스 지분 99.5%를 확보할 방침이다. 가격은 1300억~1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테이팩스는 반도체·2차전지·전자부품·전기부품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다. 소비자들에게는 '유니랩' 브랜드의 식품 포장용 랩, 비닐봉지, 비닐장갑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00억원, 120억원을 기록했다.

한솔케미칼은 테이팩스 인수로 전자소재사업부와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테이팩스 제품구성은 한솔케미칼의 전자소재 사업부와 시너지 효과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

'정산애강' 최대주주 박연차 회장, 지분 확대

태광실업그룹 편입이후 실적개선
소방용 배관자재 시장점유율 40%
특수관계인 포함 53.42%로 늘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정산애강 지분을 늘리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확대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애강은 전날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21만7000주를 장내 매수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3%에서 53.42%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정산애강은 이번 박 회장의 지분 확대가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애강이 지난 2014년 태광실업 계열사 편입 이후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년도 아파트 분양 호조 및 신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1990년 창업한 정산애강은 급수 급탕용 및 난방용, 소방용 배관재 등 설비배관 자재 생산 기업이다. 아파트·주택의 난방과 급탕 등 PB파이프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소방용 배관자재 시장에서도 4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정산애강은 2014년 7월 태광실업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재무안정성을 확보했고, 최근 성장성이 정체된 도시광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기존 아산 및 여수에 흩어져 있던 4개 공장을 충주로 통합 이전해 설비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시켰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날 美현지법인, 英 손잡고 글로벌 결제시장 노크

빌투모바일, 뱅고와 제휴…모바일 인증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모바일결제 전문기업인 다날은 미국 현지법인이 영국 모바일 결제전문 기업인 '뱅고(Bango)'와 제휴를 맺고 유럽시장 및 글로벌 모바일 인증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영국 모바일 결제전문 기업인 '뱅고'는 다날 미국법인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빌투모바일(BilltoMobile)'을 인수하면서 유럽 및 북미 결제사업을 강화한다. 다날 미국법인은 뱅고와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바일 인증사업 확대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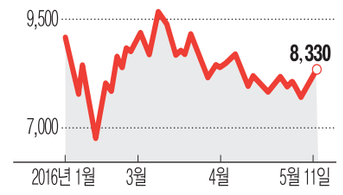
특히 모바일 결제사업에 강점이 있는 뱅고는 다날 미국법인을 통해 북미 시장 및 아시아 결제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날 관계자는 "결제서비스인 '빌투모바일' 사업의 정리에 따라 350만 달러 현금과 주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날 미국법인은 이번 뱅고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바일 인증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레드로버 주가 추이
(단위: 원)



콘텐츠기업 '레드로버' 글로벌 배급사 DDI와 '스파크' 해외판권 계약

하반기 애니메이션 시장을 평정할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 '스파크(SPARK)'가 글로벌 배급사와 해외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첫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레드로버는 10일 더블 더치 인터내셔널(Double Dutch International, 이하 DDI)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스파크'의 해외판권 계약(미국, 중국, 한국 제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DI는 '스파크'의 해외판권 계약과 동시에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영화 마켓인 '칸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공격적인 해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토론토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월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 세계 최초 상영)로 공개된 '스파크'는 개막작으로 소개되며 화려한 서막을 알린 바 있다.

월드 프리미어 공개 이후 '스파크'는 다수의 글로벌 배급사로부터 전 세계 세일즈 판권에 대한 계약 문의가 끊이질 않았으며, 특히 캐나다의 메이저 배급사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계약을 체결한 DDI는 토론토에 있는 글로벌 배급사로 글로벌 영화 제작사 및 방송국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믹, 패밀리 영화 배급에 대해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스파크'의 글로벌 배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레드로버 관계자는 "DDI는 칸영화제에서 '스파크'를 배급사 대표작으로 홍보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며 "레드로버 또한 DDI가 글로벌 배급에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크'는 2016년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시장을 필두로 북미 및 전 세계 개봉을 통해 글로벌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LG SIGNATURE
LG 시그니처 탄생
이제, 가전의 역사가 바뀝니다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가전작품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초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
LG SIGNATURE